

Annual Report

2018

KBS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18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8
4. 상담내용 분석	49
5. 정보공개 안내	107
※시청자 권익보호란?	113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16
7. 시청자 청원	118
8. 제작진 답변	120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29
- KBS 민원사무처리규정	134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39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41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42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24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23 명이 주간 2 교대, 야간 2 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인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18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18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376,622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273,712건 72.7%)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간	상담건수	증감	증감률
2018년	376,622	▼ 32,658	-7.98%
2017년	409,275	▼ 67,218	-14.11%
2016년	476,493	▲ 23,426	5.17%
2015년	453,067	▼ 13,086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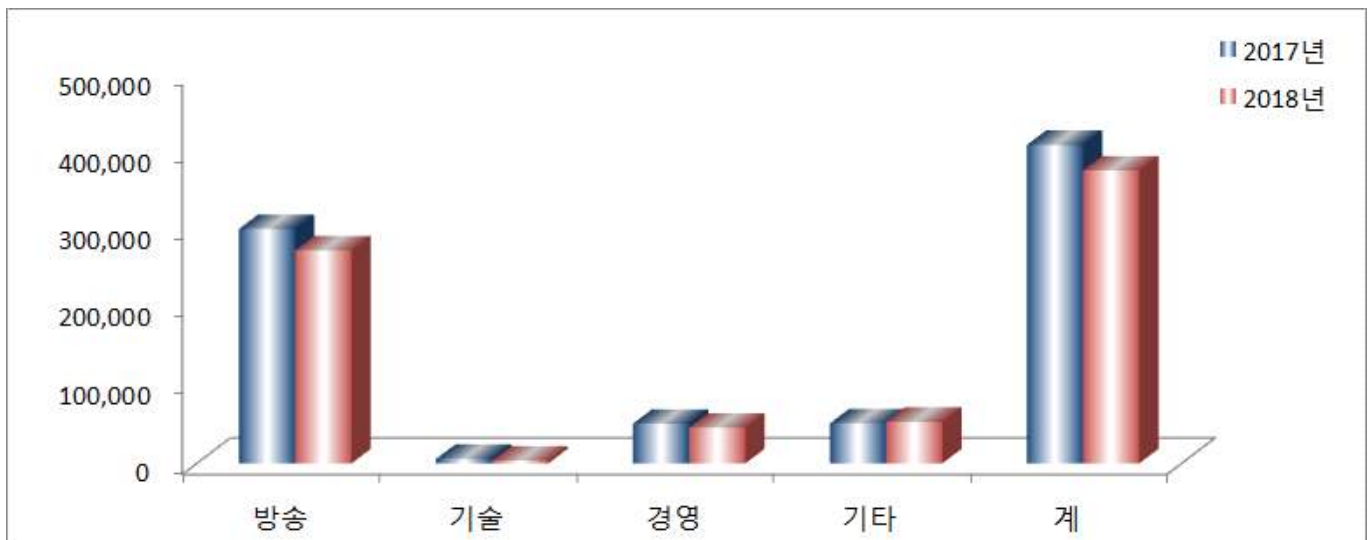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18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23,691	382	4,322	4,549	32,944	
2	20,845	290	3,223	3,722	28,080	
3	22,669	302	3,744	4,557	31,272	
4	20,471	346	3,631	4,722	29,170	
5	21,525	322	3,609	4,567	30,023	
6	22,559	292	3,329	4,373	30,553	
7	23,564	317	3,656	4,901	32,438	
8	26,370	397	5,112	5,349	37,228	
9	20,411	258	3,504	4,125	28,298	
10	23,765	261	4,374	4,320	32,720	
11	23,685	271	3,470	3,903	31,329	
12	24,157	279	3,856	4,275	32,567	
계	건	273,712	3,717	45,830	53,363	376,622
	비율	73.6%	1.4%	12.4%	1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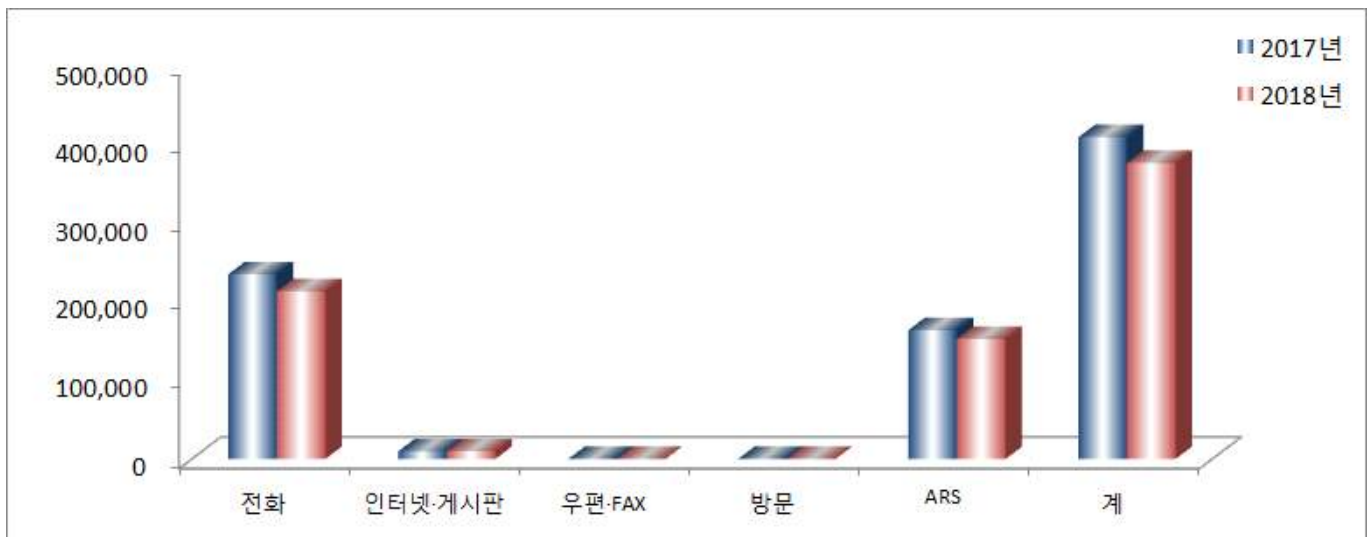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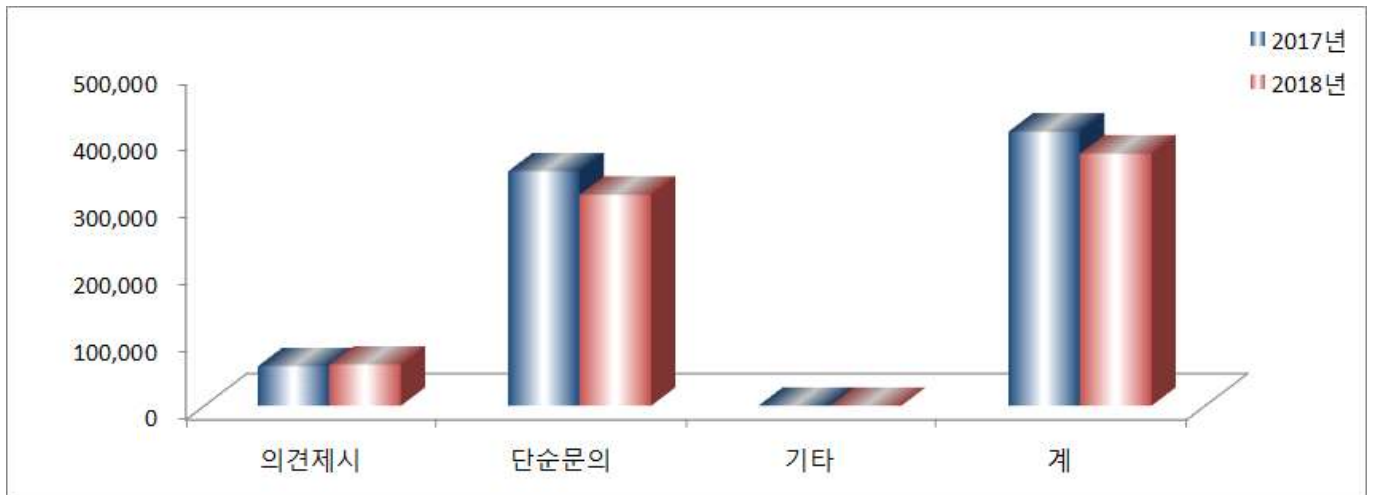
■ 2018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18,573	700	15	30	13,626	32,944	
2	17,092	775	19	22	10,172	28,080	
3	18,111	1,112	25	37	11,987	31,272	
4	17,036	584	32	27	11,491	29,170	
5	16,929	602	49	50	12,393	30,023	
6	17,633	675	41	40	12,164	30,553	
7	18,034	953	17	30	13,404	32,438	
8	20,806	1,112	11	33	15,266	37,228	
9	16,236	689	8	25	11,340	28,298	
10	17,841	726	15	27	14,111	32,720	
11	16,722	1,269	11	34	13,293	31,329	
12	18,325	709	6	26	13,501	32,567	
계	건	213,338	9,906	249	381	152,748	376,622
	비율	57.4%	2.4%	0.0%	0.1%	4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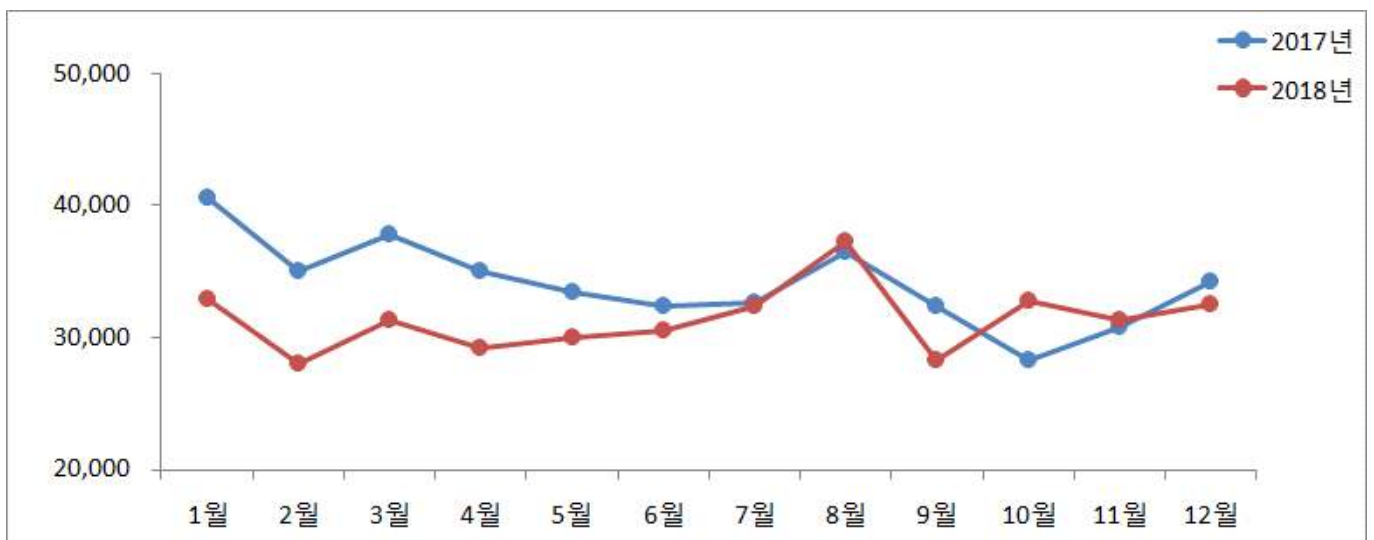
[2017년, 2018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7년, 2018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7년, 2018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18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505	84	0	102	48	33	13	-	-	785	
2	872	12	65	80	13	35	7	-	-	1,084	
3	337	28	2	53	21	18	9	-	1	469	
4	267	69	4	67	18	11	19	-	3	458	
5	121	64	0	61	36	20	23	-	-	325	
6	207	71	8	78	30	15	43	-	-	452	
7	47	90	7	357	46	26	10	-	-	583	
8	430	39	23	239	19	26	13	-	42	831	
9	259	189	0	72	20	14	12	-	-	566	
10	228	103	1	151	24	47	24	-	-	578	
11	171	63	12	90	78	34	23	-	-	471	
12	61	828	0	127	30	27	21	-	-	1,094	
계	건수	3,505	1,640	122	1,477	383	306	217	-	46	7,696
	비율	45.5%	21.3%	1.6%	19.2%	5.0%	4.0%	2.8%	0.0%	0.6%	1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송년특집 황금빛 내 인생	상반된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가족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기존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재편집한 송년 특집이 방송되었다. 본 방송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매우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12
2월	황금빛 내 인생	'흙수저'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가 가짜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06
3월	가요무대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옛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방송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45
4월	2018 남북평화 협력기원 2차 평양공연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 방송되었다. 이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진행되었다고 소식을 접했는데 공연 중계 편성이 없어 아쉽다.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라며 편성될 경우 사전에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해 주기 바란다.	53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가요무대	<p>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을 볼 수 있어 반갑고, 추억의 옛 노래를 들으며 향수에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본인에게는 참 소중한데.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p>	43
6월	같이 살래요 핑크로맨스 스페셜	<p>사별 후 홀로 4남매를 키워낸 아버지이자 수제화 장인으로 살아온 박효섭(유동근 분)에게 첫사랑 이미연(장미희 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축구 중계가 편성되면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스페셜 프로그램은 배우들의 인터뷰, 촬영장 뒷이야기 등으로 80분간 꾸며졌다. 80분이면 본 방송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인데, 굳이 스페셜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개를 지연시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추후에는 드라마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 변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p>	60
7월	아침마당	<p>이날 '객관식 토크 나는 몇 번?' 코너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개고기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대한육견협회 김종석 회장이 출연해 사육농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편파적으로 보였다. 또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닌, 식용금지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선 헷갈렸다. 더불어 전화 투표 방식이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들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도 불편했다. 추후에는 아침 시간 프로그램에서 이런 자극적인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p>	275
8월	이산가족 상봉 생중계 요청	<p>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1차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쪽 이산가족 방문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실시간 중계방송이 없어 아쉬웠다. 오래도록 서로를 그리워했던 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이 보고 싶으니, 실시간 중계를 해주기 바란다.</p>	220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같이 살래요	<p>지난 주 방송에서 박효섭(유동근 분)이 마침내 이미연(장미희 분)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슬프지만 내색하지 않고 미연의 곁을 지켜 감동 받았다. 갈수록 흥미진진한 전개에 이날 방송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 중계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되었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드라마 결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p>	116
10월	하나뿐인 내편	<p>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있어서 매 회 놓치지 않고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편성 시간이 변경되어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편성 변경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p>	82
11월	해피선데이	<p>매주 일요일마다 아빠들의 육아 도전을 다룬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1박 2일'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방송이 시작되길 기다리며 TV 앞에 앉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또한 편성시간도 평소보다 짧았다. 앞으로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p>	37
12월	오늘밤 김제동	<p>본인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이시며, 본인의 아들 또한 군인이다. 얼마 전 해당 방송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킨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영상을 방영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진행자 김제동 씨는 본인의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로,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p>	366

4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송년특집 황금빛 내 인생]	212	상반된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가족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기존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재편집한 송년 특집이 방송되었다. 본 방송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매우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일요토론]	77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적폐 청산과 정치보복 논란의 실체를 짚어보고, 향후 검찰 수사와 적폐 청산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들이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중 끼어들거나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등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차후 출연자 섭외 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41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이 출연해 반가웠고 그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쉽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R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33	드라마 형식으로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진행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정에 시작하는 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워 오전에 편성된 재방송으로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오전에 편성된 재방송이 최근 들어 방송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기존처럼 오전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32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옛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날은 작년에 방송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D-100' 특집 무대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재방송 자막이 표기되지 않아 본 방송으로 착각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을 헛갈릴 수도 있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특별생방송 2018 대한 민국 2부]	27	대한민국이 안전사고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해법,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에 대해 2018년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패널들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탁상공론 같아 공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시청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방법이 없어 아쉽다.
1TV [콘서트 7080]	18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들으며 그 당시의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본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하는데 정규 방송시간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콘서트 7080]	15	매주 금요일마다 7080년대의 명곡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거나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TV [콘서트 7080]	15	708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당시의 인기곡을 통해 옛 추억을 회상하며 즐길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 세요]	12	스타가 아닌 일반인 위주의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고민과 사연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사연 하나하나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패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어 아쉬웠다. 이른 시일 내에 정상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 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황금빛 내 인생]	206	'흙수저'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가 가짜 신분상승의 기회를 얻으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황금빛 내 인생]	188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이다.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결방되어 매우 아쉬웠다. 가급적 드라마 결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황금빛 내 인생]	116	상반된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인해 해당 방송시간보다 2시간 늦게 드라마가 시작되어 불편했다. 앞으로는 시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송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란다.
1TV [미워도 사랑해]	87	가족 휴먼 드라마를 좋아해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갑작스럽게 뉴스가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별도의 양해 안내 자막도 없이 갑자기 드라마가 중단되어 불쾌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라며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주기 바란다.
1TV [평창올림픽 라이브]	33	컬링 여자 예선 5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해설위원이 경기 분석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대팀이 실수하길 바란다는 등 불필요한 발언을 하여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고 차분하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가요무대]	32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방송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매우 아쉽다. 되도록 결방은 자제하고 편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고지해 주기 바란다.
1TV [미워도 사랑해]	27	정근섭(이병준 분)과 변부식(이동하 분)이 의식을 찾은 김행자(송옥숙 분)를 가족들 몰래 요양 병원으로 빼돌린 모습이 방송되었다. 인간의 정과 사랑을 그린 휴먼가족 드라마의 기획의도와 달리 등장인물들이 도가 지나친 험박과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보기 불편하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하는 만큼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일요토론]	26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 주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방송되었다.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1TV [미워도 사랑해]	20	엄마와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휴먼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TV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16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이 방송되었다. 북한 노래들과 한국 가요, 관현악곡 등 다양한 무대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본 방송을 처음부터 시청하지 못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 3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가요무대]	145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옛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방송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미워도 사랑해]	31	피 한 방울 안 섞인 엄마와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휴먼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추후에는 드라마 결방을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2018 평창 패럴림픽라이브]	20	이번 2018 평창 패럴림픽은 일부 소외계층의 축제가 아닌 전 장애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세계인의 축제이다. 그런데 주말에 경기를 시청하고 싶었는데, 아이스하키 종목 경기 중계와 하이라이트 외에는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자주 열리는 경기가 아닌 만큼 편성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중계방송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TV [생방송 일요토론]	20	'6월 개헌,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중진의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개헌 정국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출연자들 중 일부가 상대방이 말하는 중 끼어들거나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등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아쉬웠다. 앞으로는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며 토론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20	매주 토요일마다 일반인들의 가창력뿐만 아니라 숨겨진 가슴 찡한 인생사와 추억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이어 연속 결방되어 매우 아쉽다. 되도록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19	요일별 코너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날 해당 방송 시간에 맞춰 TV를 켜는데 뉴스 특보가 긴급 편성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아 아쉬웠다. 뉴스특보도 중요하지만, 정규 프로그램을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13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평창 패럴림픽 중계방송이 편성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 없이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1 대 100]	12	1명의 도전자와 일반인 100명이 최후의 생존자 1인을 가릴 때까지 퀴즈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방송시간에 맞춰 TV를 시청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웠다. 추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9	매주 금요일마다 생방송으로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니 추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황금빛 내 인생]	7	상반된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했다. 다양한 에피소드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지닌 매력을 잘 살려내어 재미있게 시청하였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일깨워 준 좋은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기타 [2018 남북평화 협력기 원 2차 평양공연]	53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 방송되었다. 이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진행되었다고 소식을 접했는데 공연 중계 편성이 없어 아쉽다.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라며 편성될 경우 사전에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해 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일요토론]	51	'드루킹 사건'을 주제로 현재의 정국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내내 패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본인의 의견만 주장하는 등 토론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뿐만 아니라 진행자가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편향된 진행을 하여 아쉬웠다. 앞으로는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TV [미워도 사랑해]	32	피 한 방울 안 섞인 엄마와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휴먼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결방되어 아쉽다. 추후에는 드라마 결방을 가급적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미워도 사랑해]	24	엄마와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휴먼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특집 KBS 뉴스9' 편성으로 드라마가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추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23	평소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이 출연해 잔잔한 향수와 추억이 담긴 옛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추후에는 결방을 자제하고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2018 남북평화 협력기 원 평양공연]	20	지난 1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 방송되었다.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레드벨벳 등 다양한 가수들의 수준 높은 무대들로 보는 내내 즐거웠다. 방송을 통해 남북 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KBS 혁신프로젝트 끝 까지 깬다]	20	세대와 직업이 각기 다른 일반인 시청자 평가단 6명이 KBS 관행,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해 비평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일반인 시청자 평가단이 어떤 기준으로 섭외된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방송 내용도 전 정권에 대한 평가나 비판 위주로만 방송이 되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 있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9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신속하게 보도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뉴스가 해당 방송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되어 보기 불편했다. 차후 편성시간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주기 바란다.
1TV [세월호 4주기 추모 음 악회 기억 그리고 다시 봄]	10	세월호 4주기를 맞아 가수들의 추모 공연과 시 낭송으로 300여 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많은 실종자와 희생자를 애도하는 것도 좋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추모 음악회'를 편성하는 것은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방송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한국인의 밥상]	8	매주 목요일마다 탤런트 최불암의 매끄러운 진행과 함께 우리나라 곳곳의 명소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소개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가요무대]	43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을 볼 수 있어 반갑고, 추억의 옛 노래를 들으며 향수에 잠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본인에게는 참 소중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2018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KBS초청토론]	32	2018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후보가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자유질문 순서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논의하기보단, 상호 비방과 거친 발언만 이어갔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발언 시간 대부분을 한 후보의 인신 문제에 할애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경기지사는 청렴성과 정직성이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만큼, 후보 검증할 수 있는 성숙한 토론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18	매주 일요일마다 각 지역을 찾아가 지역민들의 노래와 장기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방송시간보다 20분 늦게 시작되어 불편했다.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시청자와의 약속인 만큼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1TV [내일도 맑음]	8	강하늬(설인아 분)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한수정(홍아름 분)·윤진희(심혜진 분) 모녀에게 갑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 손님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사장이 오히려 종업원에게 사과를 증용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원인인 듯 여겨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제멋처럼 맑고 희망찬 전개를 부탁한다.
2TV [인형의 집]	7	명품관 퍼스널 쇼퍼 홍세연(박하나 분)과 재벌 3세 은경혜(왕빛나 분)의 엇갈린 운명을 재미있게 다루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는 전개로 인해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 그러나 이날은 해당 방송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다음 회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아침마당]	7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도 받고 진한 감동도 느끼는 시청자이다. 특히 김재원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아침마당'으로 복귀하여 너무 반가웠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진솔한 진행으로 시청자와 오래도록 함께 해주기 바란다.
1R [최강욱의 최강시사]	7	아침 출근 시간대 편성된 신설 시사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매일 듣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가 방송 내내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며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특정 방송사를 질타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취했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만큼 추후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6	평일 오전마다 '아침마당'을 시청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던 주부 시청자이다. 무엇보다 오유경 아나운서의 맛깔스런 진행 덕에 많이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방송부터 진행자가 교체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운했다. 그간 정이 듬뿍 들었던 오유경 아나운서를 '아침마당'에서 볼 수 없어 아쉽고, 향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길 바란다.
2TV [살림하는 남자들]	5	17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결혼을 앞둔 류필립, 미나 커플이 가수들을 초대해 집들이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미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류필립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적인 노력은 부부 사이에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 비록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1TV [아침마당]	5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받을 수 있어 아침마다 챙겨보고 있다. 이번 방송은 스승의 날을 맞아 '운명처럼 만난 트로트계의 사제지간'으로 꾸며졌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나온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스승으로 출연한 가수 서주경의 의상은 다소 민망했다. 반짝이는 파란색에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은 방송에 적절한 의상이 아닌 것 같았다. 앞으로는 출연자 의상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같이 살래요 핑크로맨스 스페셜]	60	사별 후 홀로 4남매를 키워낸 아버지이자 수제화 장인으로 살아온 박효섭(유동근 분)에게 첫사랑 이미연(장미희 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에 축구 중계가 편성되면서, 시간을 조금 앞당겨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스페셜 프로그램은 배우들의 인터뷰, 촬영장 뒷이야기 등으로 80분간 꾸며졌다. 80분이면 본 방송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인데, 굳이 스페셜 프로그램을 편성해 전개를 지연시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추후에는 드라마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 변동을 자체 해 주기 바란다.
1TV [호국보훈의 달 기획 가요무대]	35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한데, 그런데 이날은 기존 방송시간보다 십 분이나 지연되어 많이 불편했다. 앞으로는 최대한 편성에 변동이 없길 바란다.
1TV [내일도 맑음]	22	흡수저 무스펙 주인공 강하늬(설인아 분)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로, 주인공의 당차고 밝은 모습이 보기 좋아 매 회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9시 뉴스가 특집으로 진행되며 드라마가 결방됐다. 드라마의 특성상 흐름이 깨지면 시청할 때 기운이 빠지게 마련이다. 앞으로는 편성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1R [김용민 라이브]	18	본인은 오랫동안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애청해온 청취자이다. 지난 5월, KBS 라디오 수시조정을 통해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김 시사평론가는 기존에 팟캐스트에서 막말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고,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또 한 번의 욕설을 사용했다.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기대치와 규정에 맞는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TV [2018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KBS초청토론]	17	6.13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KBS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잘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세먼지 문제가 최대 쟁점사안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포함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한 소리로 들렸다. 조금 더 서민의 사정을 헤아리는 정책,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인형의 집]	16	명품관 퍼스널 쇼퍼 홍세연(박하나 분)과 재벌 3세 은경혜(왕빛나 분)의 엇갈린 운명을 재미있게 다루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특히 빠른 전개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다음 회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같이 살래요]	14	사별 후 홀로 4남매를 키워낸 아버지이자 수제화 장인으로 살아온 박효섭(유동근 분)에게 첫사랑 이미연(장미희 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극본이 탄탄하고, 특히 노년층의 로맨스가 가슴 설레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 방송시간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되어 불편했다. 추후에는 방송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14	평화의 섬 제주도가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다룬 이날 방송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방송은 목숨을 걸고 살 곳을 찾아온 그들에게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불과 반세기 전 대량의 난민을 배출했던 한국이야말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각종 범죄 발생과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추후에는 상반된 주장을 보다 공정하게 다루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12	'현충일 특집'으로 꾸며진 이날 방송은 '노래는 남북을 넘어'라는 부제를 달고 평양공연에 다녀온 다섯 명의 스타가 출연했다. 1985년 평양공연을 다녀온 가수 하춘화, 코미디언 남보원,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평양공연을 다녀온 설운도, 2003년 평양노래자랑 진행자 송해, 1999년부터 올봄까지 네 차례 방북 경험을 가진 최진희가 평양공연 뒷이야기를 들려주고, 북에 가서 불렀던 노래도 선보였다. 그런데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이다. 스타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현충일 기획에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엄숙하고 경건한 방송을 만들어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9	젊은 실력파 가수들이 전설의 가수들의 명곡을 재해석한 무대를 감상하며 평일 동안 쌓인 피로를 푸는 시청자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날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몹시 실망스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275	<p>이날 '객관식 토크 나는 몇 번?' 코너에서 개고기 식용금지법에 대해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개고기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는 대한육견협회 김종석 회장이 출연해 사육농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편파적으로 보였다. 또한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닌, 식용금지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선 헛갈렸다. 더불어 전화 투표 방식이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들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도 불편했다. 추후에는 아침 시간 프로그램에서 이런 자극적인 소재는 자제해 주기 바란다.</p>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16	<p>이날 방송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놨다. 그런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휴전 국가에서 징집에 의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은 길게, 고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악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뤄주기 바란다.</p>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5	<p>이날 방송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보도 논란'과 '기무사 문건 파문'에 대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우선 노회찬 원내대표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은 맞다'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인물을 방송에서 계속해서 미화시키는 것은 편파적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위수령 관련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기무사 측을 대변할 패널 섭외 없이 토론한 것도 공정하지 않다. 추후에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패널을 섭외하여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p>
1TV [아침마당]	12	<p>이날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패널들이 '며느리살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패널로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가 시어머니들의 참견에 힘들을 토로하며, 집안에 관여하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이혼하는 사유가 된다고 발언했다. 본인도 며느리의 입장이지만, 방송을 보는 내내 고부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KBS 뉴스 9]	9	최근 KBS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지식인과 대학 사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보도했다. 모든 정책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4대강의 경우 좋은 점은 모두 덮어둔 채, 전 정권의 비리만 캐는 부분이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는 살기 힘든 서민들의 경제 문제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9	이날 방송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본인도 노회찬 의원이 한국 진보 정치의 지형을 넓히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방송에서 미화하는 것은 그다지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 추후에는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내일도 맑음]	8	주인공 강하늬(설인아 분)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더불어 강하늬의 주변 사람들도 제목처럼 밝고 명랑한 캐릭터라서 보기 좋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작위적인 설정, 도를 넘는 악행, 천륜을 거스르는 행위 등 처음과 같지 않은 전개로 실망스러움을 안긴다. 추후에는 제목처럼 밝고 희망찬 내용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2TV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7	러시아에서 열린 벨기에와 일본의 월드컵 16강전 경기를 시청했다. 이날 벨기에는 일본에게 2점을 먼저 내줬지만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해설위원이 벨기에 선수가 역전골을 기록하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환호하는 등, 편파적인 해설을 하여 보기에 좋지 않았다. 추후에는 중립적인 태도로 경기를 해석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7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이날 스튜디오에 유가족 대표가 직접 출연해서 법원 판결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밝혔다. 유가족 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청년실업률, 제조업 경기 어려움, 자영업자 파산 등 경제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나간 일은 이제 묻어두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p>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p>	<p>6</p>	<p>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우리 사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직접 이야기해주어 더욱 와 닿는 면이 많았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영된다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편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기타 [이산가족 상봉 생중계 요청]	220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1차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쪽 이산가족 방문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런데 실시간 중계방송이 없어 아쉬웠다. 오래도록 서로를 그리워했던 가족들이 만나는 모습이 보고 싶으니, 실시간 중계를 해주기 바란다.
기타 [김제동 더 라이브(가칭)]	71	'김제동 더 라이브'를 올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 편성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 김제동 씨의 경우 과거 수많은 방송에서 본인의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다. 편파적 성향의 사람이고,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잘하는지도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한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섭외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몹시 우려스럽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주기 바란다.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VOD)서비스]	41	지난 5일부터 KBS 디지털서비스가 개편되며 몇몇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유료로 변경되었다. 3주가 지나면 무료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방송을 놓쳤을 경우 내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영방송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다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35	전국 각 지방을 돌며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방송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어 무척 흥미롭다. 이날 역시 온 가족이 모여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일요진단]	26	계엄령 문건의 쟁점과 문제를 살펴보고, 기무사 개혁 방안을 짚어보는 방송 잘 보았다. 토론을 위해 관련 전문가 세 명(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신원식 고려대 연구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했는데, 임태훈 씨는 병역 거부자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인물이므로 해당 토론에 참여하기엔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또한 출연자 구성에 균형이 맞지 않는 듯 보이고,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언론은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23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고용쇼크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와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경청과 공감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패널들이 서로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등 예의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22	이날 방송은 최저임금 논란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점을 다뤘다. 패널들은 보수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올들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본인은 오랜 기간 자영업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패널들의 발언이 허황되게 느껴졌다. 반대 의견 없이 패널 모두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 구성으로 객관적인 토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2TV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2	이날 자카르타 현지에서 생중계한 남자축구 16강전을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대한민국이 이란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스코어 자막이 각 나라의 진영과 반대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스러웠다. 스코어 자막이 어떠한 규칙으로 표기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1TV [명견만리]	20	현재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계층 간의 이동의 사다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는 그 장벽을 허물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날의 연사는 김제동 씨였다. 김제동 씨는 과거 수많은 방송에서 본인의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어서, 방송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KBS 스페셜]	14	이날 방송에서는 노회찬이 걸어온 정치역정과 인간적인 매력을 되돌아보고, 대중정치인으로서 그가 남긴 과제를 살펴보았다. 물론 서민을 대변하며 촛불살인의 풍자로 사랑받던 대중정치인 노회찬을 애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미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인물이므로, 방송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같이 살래요]	116	<p>지난 주 방송에서 박효섭(유동근 분)이 마침내 이미연(장미희 분)의 병에 대해 알게 되었고, 슬프지만 내색하지 않고 미연의 곁을 지켜 감동 받았다. 갈수록 흥미진진한 전개에 이날 방송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 중계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되었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드라마 결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p>
1TV [KBS 뉴스특보]	74	<p>이날 '뉴스특보'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을 나누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 중 욕설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욕설을 했고, 그런 욕설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KBS는 남북정상회담의 주관방송사로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p>
1TV [내일도 맑음]	48	<p>밝고 건강한 주인공 강하늬(설인아 분)와 그의 지인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매일 저녁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하늬와 그의 친모 윤진희(심혜진 분)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전개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날 기다리던 방송이 결방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p>
1TV [KBS 뉴스 9]	32	<p>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방한을 했다. 그래서 이날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한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특히 외국 정상외의 환영 행사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열린 것이 사상 처음이라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및 환영식 관련 뉴스가 보도되지 않아 의아했다. 외국 정상이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니 꼭 보도해주기 바란다.</p>
1TV [KBS 뉴스특보]	21	<p>이날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마지막 날 일정이 시작됐다. 물론 지난 2박 3일간 열린 정상회담의 일정과 성과, 그에 따른 과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날 편성표를 보면 정규 프로그램은 모두 결방이 되고, 오직 '뉴스특보'만 편성되어 있다. 모든 시청자가 '뉴스특보'만 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조속히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p>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오늘밤 김제동]	20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느껴져 신선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는 과거 거짓 영창 발언 등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더욱이 본인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이 과연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상을 지닌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7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판빙빙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해서 온갖 억측과 괴담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베이징 특파원이 판빙빙 소속사의 베이징 사무소를 찾아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해외 여배우의 잠적설이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더 중요한 국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5	이날 방송을 보니 '세금 폭탄론' 등 다양한 시사 현안을 담은 토크쇼로 진행이 되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방송을 시청하는 내내 균형감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 진행자로 김제동 씨가 적격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방송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웠다. 추후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13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 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을 전하기 위해 서울역에 나가있던 한 취재기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는 실수가 있었다. KBS는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사인 만큼, 앞으로는 조금의 실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TV [끝까지 사랑]	9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 이들이 사랑을 지켜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주연을 맡은 배우 이영아와 강은탁의 연기력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이날은 '추석특선영화'가 방영되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되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하나뿐인 내편]	82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있어서 매 회 놓치지 않고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편성 시간이 변경되어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편성 변경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내일도 맑음]	46	최근 주인공 강하늬(설인아 분)와 그의 친모 윤진희(심혜진 분)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전개가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극의 전개가 너무 궁금해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이날 기다리던 방송이 결방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26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일파만파 변진 사립유치원 파문 관련하여 근본적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 계 인사들이 모여 토론하였다. 그러나 출연자들이 서로 본인들 입장에서 자기주장만을 펼치고, 서로의 말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 시청하는데 불편했다. 이런 토론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좀 더 나은 토론 태도를 가지고 출연자가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5	최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오늘밤 김제동'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제동의 고액 출연료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물론 출연자의 출연료는 방송국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 되겠지만,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불어 균형감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 진행자로 김제동 씨가 적격인가 하는 의문마저 들었다. 추후 개편 시에는 보다 역량을 갖춘 진행자로 교체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18	이날 공연은 야경이 아름다운 진주시 남강 특설무대에서 꾸며졌다.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주옥같은 명곡을 들을 수 있어서 평소에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지만, 이날은 더욱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서 더 즐겁게 시청했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7	이날은 자가당착에 빠진 조선일보의 통일보도를 다뤘다. 통일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2014년과 2018년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내용이 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논조에 동조하는 시청자들도 많다. 조선일보는 틀리고 JTBC는 옳다는 식의 보도는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토크쇼라면 다양한 의견을 지닌 패널들이 출연해야 하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진보 성향의 패널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토론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앞으로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7	평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본인은 정치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시사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데,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추후 개편 시에는 역량을 갖춘 진행자로 교체해 주기 바란다.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15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종전선언의 시기와 조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여야 정치인들이 출연해 토론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흥미롭게 시청했다. 그런데 패널들이 서로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등 예의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5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평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시청한다. 그렇지만 방송을 시청하는 내내 균형감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 진행자로 김제동 씨가 적격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방송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렵다. 추후에는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4	매주 실력 있는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편곡해 불러주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기대를 품고 TV 앞에 앉았는데, 방송이 예정보다 30분가량 지연되어 불편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방송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해피선데이]	37	매주 일요일마다 아빠들의 육아 도전을 다룬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1박 2일'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방송이 시작되길 기다리며 TV 앞에 앉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또한 편성시간도 평소보다 짧았다. 앞으로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시간을 꼭 지켜 주기 바란다.
1TV [콘서트 7080]	27	'콘서트 7080'은 중장년층을 위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으로, 이 방송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해당 프로그램이 안타깝게도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본인처럼 아쉽고 서운한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 속히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5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평일 밤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안 된다. 또한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고액 출연료도,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금액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상을 지닌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2TV [끝까지 사랑]	22	이영아, 홍수아, 강은탁, 심지호 등의 주연배우들이 열연을 펼치고 있어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 이들이 하나뿐인 사랑을 지켜내고 끝내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이날은 프로야구 경기 중계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되었다. 앞으로는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2TV [끝까지 사랑]	22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 이들이 사랑을 지켜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주연을 맡은 배우 이영아와 강은탁의 연기력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이날은 야구 중계로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되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1 대 100]	22	1인과 100인의 대결로, 상금 오천만 원을 걸고 최후의 생존자 1인이 남을 때까지 대결하는 퀴즈쇼 프로그램이다. 퀴즈를 푸는 동안 상식이나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어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해당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외출에서 급히 돌아왔는데,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추후에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살림하는 남자들]	19	스타 남편들의 리얼한 살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연령대 남자들의 일상을 통해, 살림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 매번 잔잔한 감동을 받는다. 그런데 이날은 프로야구 경기 중계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몹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2TV [1 대 100]	18	가수 박경이 5천만원에 도전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정답은 '오수의 오수개'였다. 뒤이어 '전라남도 오수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관련된 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오수는 전라북도에 있는 면이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7	이날 방송에서는 '혜경궁 김씨' 논란을 다뤘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김혜경 씨의 입장만 보도했다. 반면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의 입장은 보도하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앞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2TV [2018 프로야구-한국시리즈 6차전]	11	SK가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승리했다. 방송을 통해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투지를 발휘했던 양 팀의 경기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진행자 세 명(이용철 해설위원·이광용 아나운서·장성호 해설위원)이 전반적으로 SK 선수들에게 호의적인 멘트를 많이 해서, 중계가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추후 경기에는 캐스터와 해설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중계를 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오늘밤 김제동]	366	본인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이시며, 본인의 아들 또한 군인이다. 얼마 전 해당 방송에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킨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영상을 방영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진행자 김제동 씨는 본인의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로,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210	지난 4일 해당 방송에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본 후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는 지난달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다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145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밋게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느껴져 신선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의 노골적인 정치색과 다소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 입장에서 몹시 우려스럽다. 앞으로 제작진과 진행자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49	오늘의 이슈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그날의 이슈들을 짚어주는 점은 유익하다. 그러나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제작진과 진행자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1TV [오늘밤 김제동]	46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의 자질에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 같지 않고, 발음이나 음성 등 많은 부분에서 진행자로의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SNS 의혹 보도와 관련해 편파적이었던 제작진의 태도도 조금 실망스럽다. 앞으로는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17	이날 토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과 무엇이 좋은 선거 제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문자로 참여했으나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해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2TV [하나뿐인 내편-인연이라 말합니다-]	13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있어서 매 회 놓치지 않고 시청 중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본 방송 대신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스페셜 방송을 편성하여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라인]	11	본인은 매일 밤 '뉴스라인'을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곧 폐지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게 되었다. 오랜 시간 심야를 책임져온 프로그램인데, 폐지가 된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8	이날은 만 18세 투표권 허용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학제상 고3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 세계적 흐름만 쫓는 건 그다지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 더불어 이런 방송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탄력을 붙이게 될까 우려스럽다.
1TV [특선 다큐멘터리]	8	영국 록 음악계에서 손꼽힐 만큼 카리스마 넘치고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인물인 프레디 머큐리를 집중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였다. 위대한 슈퍼스타의 모습에 가려진 한 남자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2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시 청 자 상 담 일 일 보 고 서

변화를 통한 국민감동

2018. 4. 12.[목]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4.12.)

■ KBS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0000, 2690) [작성: (주)케이티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18. 4. 11.(수) 06:00 ~ 2018. 4. 12.(목) 06:00
- 상담건수: 1,011건
- 주요의견: 1TV「UHD명품역사관 징비록」- 재방송 편성 호평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

방송일시 : 2018. 4. 11.(수) 1TV (11:00-11:50) (재)

- 상담의견 : 재방송 편성 호평

조선 중기 주목받지 못했던 류성룡의 자취를 재조명하여 임진왜란이 발생한 7년 동안 조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류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을 자세히 다루어 역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종영되어 아쉬웠는데 재방송을 편성해 주어 좋았다.

※ 참고: 4p 본문 참조.

※ 1TV사업국 국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4. 12. 07:34 문자 통보)
1TV편성운영부 부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4. 12. 07:34 문자 통보)
1TV편성운영부 팀장 (시청자의견 이메일발송 / 4. 12. 07:34 문자 통보).

III.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01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586	45	-	-	380	1,01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08	323	21	-	-	259	1,01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46	865	-	1,01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95	23	109	184	1,011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말 겨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방송 요청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방송 편성 호평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혁신프로젝트 끝까지 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룻밤만 재워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1 대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인형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발 FM과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곡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채나물 정식’ 연락처 문의 60건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전통장’ 구매처 문의 44건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방송 참여 방법’ 문의 25건 ○「가요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청’ 문의 10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연락처 문의 8건 외 522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신료 및 난시청」문의 22건 ○「수신기술」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문의 44건 ○「전화교환」문의 29건 ○「프로그램 구입」문의 24건 ○「사업 및 행사」문의 5건 ○「주차」문의 4건 외 3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외 183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재방송 요청	<p>○「우리말 겨루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9.(월) 1TV (19:35-20:25) - 매주 월요일마다 일반인 출연자들의 우리말 퀴즈 대결을 통해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본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다시 보고 싶은데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쉬웠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10. 15 (일) 1TV (15:05-16:00) 이후 재방송 편성이 없음.
재방송 편성 호평	<p>○「UHD 명품역사관 징비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11.(수) 1TV (11:00-11:50) (재) - 조선 중기 주목받지 못했던 류성룡의 자취를 재조명하여 임진왜란이 발생한 7년 동안 조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류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을 자세히 다루어 역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종영되어 아쉬웠는데 재방송을 편성해 주어 좋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 70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징비록」 2015. 2. 14.~2015. 8. 2. (토-일) 1TV 방송. (총 50부작)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방송 제언	<p>○「KBS 혁신프로젝트 끝까지 간다」(2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10.(화) 1TV (22:00-23:20) - 세대와 직업이 각기 다른 일반인 시청자 평가단 6명이 KBS 관행,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해 비평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일반인 시청자 평가단이 어떤 기준으로 섭외된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방송 내용도 전 정권에 대한 평가나 비판 위주로만 방송이 되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 있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답변> 섭외 기준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와 주요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올리고 출연자를 모집하였음. 지원자들 중에서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서 선정함. 방송 내용 중 전 정권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없었음. 다만 출연자 중 일부가 정권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 KBS 저널리즘이 편향되어 있었음을 지적함. 이는 정권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니라 KBS 뉴스와 저널리즘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었음. [TV프로덕션 4]
[연예.오락]	
방송 호평	<p>○「하룻밤만 재워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10.(화) 2TV (23:10-00:40) - 해외에서 단 1%의 사전 섭외 없이 현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들의 일상까지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낯선 나라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추억을 쌓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출연자 섭외 제언	<p>○「1 대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10.(화) 2TV (20:55-22:00) - 방송인 현영이 1인 도전자로 출연했다. 그런데 현영은 지난 2013년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출연 섭외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드라마]	
방송 호평	<p>○ 일일드라마「인형의 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10.(화) 2TV (19:50-20:30) - 은기태(이호재 분) 회장의 손녀 은경혜(왕빛나 분)가 집사 금영숙(최명길 분)의 친 딸이란 사실을 알고 협박하는 장명환(한상진 분)과 김효정(유서진 분)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매회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 전개와 최명길, 박하나 등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력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 앞으로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김**</p>
[라디오]	
선곡 제언	<p>○「출발 FM과 함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11.(수) 1FM (07:00-09:00) -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이 날은 방송 말미에 국악이 선곡되어 당황스러웠다.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선곡하는 것은 좋지만 클래식 전문 프로그램인 만큼 클래식 위주로 선곡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듣기 95분 24초경, ‘제3의 시간-노래 이자람’ ‘태평가-노래 송소희’ 선곡됨.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22 건 (방송기술 관련 7p 참고)

3. 시청자상담 통계(2018.4.11.~4.12.)

(단위: 건)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10			1	11	
보도	108			4	112	
스포츠	1			1	2	
교양	480			4	484	
예능	43			6	49	
드라마	15			1	16	
라디오	19			2	21	
인터넷 방송	-			-	0	
계	676	0	0	19	695	

○ 기술

수신료 및 난시청	22				22	
수신기술	1				1	
주파수	-				0	
디지털전환	-				0	
DMB	-				0	
계	23	0	0	0	23	

○ 경영

전화교환	29				29	
사업 및 행사	5				5	
견학	3				3	
주차	4				4	
프로그램 구입	24				24	
홈페이지	44				44	
계	109	0	0	0	109	

○ 기타

기타	158			26	184	
계	158	0	0	26	184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가요무대」

- 중년층부터 장·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이 출연해 반가웠고, 그 시절의 추억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들으며 그 당시의 추억과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매주 금요일마다 본 방송을 기대하며 시청하는데 정규 방송시간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들려주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시간을 변경해 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역사의 비화를 자세히 들려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계속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아쉽다.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시청자가 직접 문제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쉽다. <2월 1일 보고서>
- 농어촌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흥미로워 빠짐없이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그러나 이날은 예정보다 한 시간 앞당겨 편성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본인은 방송을 놓쳐 속상했다. 방송시간은 시청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다. 가급적이면 방송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매주 수요일마다 건강 및 의학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매우 아쉬웠다. 이른 시일 내에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소개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의 여행지를 아름다운 영상미로 볼 수 있어 좋았는데 본 방송이 아닌 재방송이 편성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미워도 사랑해」**

- 가족 휴먼 드라마를 좋아해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갑작스럽게 뉴스가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별도의 양해 안내 자막도 없이 갑자기 드라마가 중단되어 불쾌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라며 방송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청자들에게 고지해 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한 여성의 삶을 통해 결혼과 이혼, 자식들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가족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본 방송을 놓쳐서 다시 보고 싶은데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쉽다. 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1TV 「제54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 제54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 경기를 시청하였다. 그런데 경기가 1:1로 후반전이 종료되고 연장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계방송이 마무리되어 아쉬웠다. 차후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중계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특집 인간과 습지 2부작」'1편 초록의 영토, 우포늪」**

- 국내 최대의 자연습지인 우포늪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방송을 다시 보고 싶은데 재방송이 낮 시간대에 편성되어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 편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3월 7일 보고서>

○ **1TV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안동 만휴정」**

- 역사적, 전통적 가치가 있는 한국 정원과 전통 음악을 통해 과거 선조들의 풍류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정원과 역사적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 음악이 어우러진 다큐멘터리로 과거 선조들의 사상과 철학, 풍류를 느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1TV 「특선 다큐 푸른 하늘을 위한 투쟁」**

- 중국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는 '푸른 하늘을 위한 투쟁'이 방송된다고 해 기다렸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실망감이 컸다. 앞으로는 편성변경 시 시청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주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1TV 「천상의 컬렉션」**

- 문화재와 경연이 결합한 문화재 배틀쇼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내세운 프로그램이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에 얽힌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너무 늦

은 시간에 방송되어 시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방송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불멸의 이순신」

- 명장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했다. 철저한 준비와 개혁 의지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이순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지도자 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주연배우 김명민(이순신 분)의 실감 나는 연기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1TV 「101세의 프러포즈」'만성 폐쇄성 폐 질환'

-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이 날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원인과 증상뿐만 아니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어 유익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ABU 국제공동제작 CARE 6」'어떤 죽음, 어느 의사의 마지막 날들-일본-'

- 말기 암 환자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전문의 다나카 마시히로가 죽음을 맞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킨 그였지만 자신의 죽음 앞에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에, 아무리 많은 임종을 지켜봐도 죽음은 익숙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본인의 남편에게도 이 방송을 추천하고 싶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법요식을 거행했다. KBS와 불교계 방송사가 생중계했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불자가 참석해 이날의 뜻을 기리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런데 불교계 방송사의 생중계는 이해가 가지만, KBS가 특정 종교의 행사를 생중계하는 것은 조금 의아했다. 자칫 편향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

- 조선 중기 주목받지 못했던 류성룡의 자취를 재조명하고, 임진왜란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낸 드라마로 2015년 방영 당시 재미있게 보았다. 올해 4월부터 평일 오전에 재방송을 해주어 예전의 감동을 떠올리며 다시 챙겨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방송이다 보니 방송 사정에 따라 결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부터 결방이 지속되고 있는데,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로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일반인이 소장한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어 늘 잘 보고 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방송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더 보고 싶을 때인데 해당 프로그램은 재방송 편성이 드물어 아쉽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전국 각 지방을 돌며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한다. 각 지역의 행사나 특산품을 소개하고, 그 지역의 특색까지도 느낄 수 있어 재미있다. 이날 역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방송을 기다렸는데, 예정보다 늦게 시작되어 불편했다. 앞으로는 최대한 편성에 변동이 없길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1TV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 바쁜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와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해준 전원드라마이다. 본인은 이 드라마를 시청하며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는데, 요즘은 이와 같은 전원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아 아쉽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휴식을 주는 이 프로그램을 재방송해 주기 바란다. <7월 6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챙겨보고 있다.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를 독하고 치열하게 파헤치려는 시도가 보기 좋다. 그런데 일요일 늦은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본인과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시청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다음 날 출근해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방송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매주 월요일마다 일반인 출연자들의 우리말 퀴즈 대결을 통해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늘 챙겨보려고 한다.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 서는 프로그램이라서 무척 유익하다. 그런데 종종 본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쉽다. 재방송을 고정적으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 광복절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제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 중계방송을 보았다. 방송을 보는 동안 국권의 회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었다. 그런데 빠듯한 편성 일정 때문인지 마지막 순서인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을 보여주지 않았다. 광복의 감동을 다시금 되새기는 행사인 만큼, 내년에는 경축식을 끝까지 보여주길 바란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5」

- 주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서 매일 오후 5시마다 해당 뉴스를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5시에 뉴스를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방송이 30분이나 지연되어 당황스러웠다. 편성 시간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므로 앞으로는 방송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래와 함께 우리 이웃들의 가슴 찡한 인생사와 추억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9월 4일 보고서>

○ 1TV 「다큐멘터리 3일」

- 본인은 퇴근 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3일'의 재방송이 방영되어 실망스러웠다. 평일 오후 7시경은 텔레비전의 황금시간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재방송이 편성되어 의아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다. 앞으로는 평일 오후에는 재방송보다는, 더 재미있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내일도 맑음」

- 흡수저 무스펙 주인공 강하늬(설인아 분)가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위안 받고 있는 시청자이다. 더불어 강하늬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어 매 회 챙겨보려고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쉽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월 19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비켜라 운명아」

- 평범한 흡수저 청년과 주변 인물들이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과 꿈을 찾는 유쾌한 내용의 드라마이다. 본인은 평일에는 방송을 볼 수 없어, 주말에 해주는 재방송을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재방송 편성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 해당 드라마의 재방송을 고정적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 <11월 29일 보고서>

○ 1TV 「다큐세상」

- '다큐세상'은 일반 대중의 삶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통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을 알 수 있었다. 무척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재방송 편성이 일정하지 않아 늘 아쉽다. 고정적인 재방송 편성을 요청한다. <12월 20일 보고서>

○ 2TV 「송년특집 황금빛 내 인생」

- 상반된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가족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날은 기존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재편집한 송년 특집이 방송되었다. 본 방송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매우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취재하여 전달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해 8월 이후 오랫동안 방송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안에 정상 방송 되었으면 좋겠다. <1월 5일 보고서>

○ 2TV 「KBS 경제타임」

- 세계 경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전문뉴스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여 유익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결방되어 매우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1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방송 편성으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되도록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

란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매주 금요일마다 생방송으로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니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김생민의 영수증 시즌2」

- 일반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하여 재무상담 및 소비전략 설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본 방송을 놓치면 재방송을 시청하는데 주말 늦은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어 보기 불편하다. 재방송을 평일 낮 시간대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실속 있는 여행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본 방송을 놓치면 재방송을 시청하는데 늦은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어 보기 불편하다. 재방송을 낮 시간대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2TV 「하룻밤만 재워줘」

- 국내를 벗어나 문화권이 전혀 다른 해외에서 '하룻밤'을 도전하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해외 문화와 일상을 간접 체험하고 현지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적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19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시청자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즐겨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본 방송과 재방송 모두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방송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3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생활정보, 시사, 음식, 해외소식 등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셀럽피디' 편성으로 인해 결방되었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젊은 실력파 가수들이 전설의 가수들의 명곡을 재해석한 무대를 감상하며 평일 동안 쌓인 피로를 푸는 시청자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날은 다른 프로그램이 방영되어 몹시 실망스러웠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같이 살래요」

- 사별 후 홀로 4남매를 키워낸 아버지이자 수제화 장인으로 살아온 박효섭(유동근 분)에게 첫사랑 이미연(장미희 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극본이 탄탄하고, 특히 노년층의 로맨스가 가슴 설레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 방송시간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시작되어 불편했다. 추후에는 방송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2TV 「거기가 어딘데??」

- 극한의 탐험 여정을 100% 리얼로 담아내는 탐험 중계방송으로, 초보 탐험대원으로 나선 네 명의 남자가 막막한 환경 속에서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었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2TV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결승전 프랑스 : 크로아티아'

-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결승전이 열렸다.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기를 시청하지 못했는데,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20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번 대회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역대 처음 결승에 진출한 크로아티아와 프랑스의 경기가 궁금하다. 본인처럼 결승전을 놓친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을 편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18일 보고서>

○ 2TV 「여름특선영화」

- 작년 여름 방학에는 여름특선영화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를 방영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했었다. 매년 KBS의 여름특선영화를 기대하고 시청하는 시청자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편성이 확인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번 여름에는 여름특선영화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한국영화를 편성해 주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8월 3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무심결에 지나치는 일상 이야기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으로, 매 회 빠짐없이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은 자카르타에서 펼쳐지는 펜싱 경기 중계로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정규 프로그램을 애청하는 시청자들을 배려해 되도록 결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매주 일요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출연하는 아이마다 각기 다른 사랑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 본인은 특히 샘 해밍턴의 둘째 아들 벤틀리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벤틀리는 너무 어려서 출연 분량이 적어 늘 아쉽다. 사랑스러운 벤틀리의 분량을 조금 늘려주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끝까지 사랑」

- 주연을 맡은 배우 이영아와 강은택의 연기가 좋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개도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시청해왔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별한 이들이 하나뿐인 사랑을 지켜내고 끝내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이날은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중계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되었다. 앞으로는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9월 13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아이돌 가수를 비롯해 평소 TV에서 접하기 힘든 음악가, 연주가가 다양하게 출연하는 라이브 뮤직 토크쇼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이날은 보컬의 정석이라 불리는 거미부터, 에피톤 프로젝트, 베이빌론, 마틴스미스가 출연해 소울 충만한 무대를 선사해 주었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으니 재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하나뿐인 내편」**

-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 있어서 매 회 놓치지 않고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편성 시간이 변경되어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편성 변경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0월 23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살림하는 남자들」**

- 매주 수요일마다 스타 살림남들의 리얼 살림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소소한 일상을 통해 살림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 매번 잔잔한 감동을 받는다. 그런데 이날은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 결방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되도록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11월 2일 보고서>

○ **2TV 「세상의 모든 다큐」**

- 다양한 주제의 해외 제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외 제작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서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송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11월 14일 보고서>

○ **2TV 아침일일드라마「차달래 부인의 사랑」**

- 중년의 세 여자가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내용으로 매일 오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제대로 된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공감도 되고 감동도 받는다.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훌륭하여 보는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재방송이 없어서 방송을 놓치는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3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본인은 '개그콘서트'를 시청하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시청자이다. 매주 다양한 코너를 통해 신선한 웃음을 선사해 주어 감사하다. 때때로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방송이 없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 **1R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드라마 형식으로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진행해 주어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정에 시작하는 본 방송을 청취하기 어려워 오전에 편성된 재방송으로 즐겨 청취했다. 그런데 오전에 편성된 재방송이 최근 들어 방송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기존처럼 오전에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29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 경제와 법률,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본인뿐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도움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8시 30분 시작이었던 방송이, 개편 이후 9시 10분 시작으로 바뀌었다. 그 시간은 직장인들이 업무를 막 시작하는 시간으로 방송 청취가 어렵다. 개편 전 시간으로 편성을 다시 옮겨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골든 팝스」**

- 팝의 전성기인 7-80년대 명품 팝송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장년 세대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올드 팝의 매력을 선사해 주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송시간이 한 시간으로 짧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 프로그램의 애청자들을 위해 편성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면 무척 기쁠 것 같다. <10월 12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클래식 음악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어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최근 들어 본 방송이 아닌 재방송으로 편성되어 아쉬웠다. 되도록 본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FM 「JAZZ 수첩」**

- 재즈를 좋아해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듣는 청취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휴일 늦은 시간에 방송되어 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좀 더 많은 청취자들이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평일 낮 시간대로 편성해 주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 애청하고 있는 청취자이다. 더불어 동서고금의 풍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오후 5시로 편성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일 오전 11시마다 방송을 청취하며 따뜻함을 느꼈던 청취자로서, 편성 시간 변경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 <5월 25일 보고서>

○ **2FM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 팝송과 영어회화를 접목시켜 즐거운 영어 학습을 유도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본인이 거주하는 강원도 강릉은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할 수 없다. 강릉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2FM 「김승우 장항준의 미스터라디오」**

- 지난 14일부터 '미스터라디오'의 새 DJ로 발탁된 배우 김승우와 장항준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브로맨스가 웃음을 선사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새벽에 편성되어 있다. 본 방송은 재미있었지만, 심야시간에 들으니 산만하게 느껴졌다. 새벽에는 보다 잔잔한 프로그램 위주로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18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강력반 X파일 끝까지 간다」**

- 국내 최초로 언론과 경찰청이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좋아 즐겨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쉬웠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영화극장**」

- 국내 영화를 비롯해 해외 명작을 우리말 더빙으로 시청할 수 있어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외화 명작을 자막이 아닌 우리말 더빙으로 볼 수 있어 내용에 쉽게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런데 즐겨 시청했던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어 무척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편성해 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1TV 「**TV 문학관**」

- 현대 한국인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대표적 문화 작품들을 엄선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다. 주옥같은 한국 근대문학의 걸작들을 단막 드라마로 제작해 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증명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제작해 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불면증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밤에 잠을 제대로 못자는 증상을 말한다. 본인처럼 원인 모를 불면증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방송을 통해서 불면증의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으니 자세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TV는 사랑을 싣고**」

-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아 만남을 성사시켜 주었던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다. 방송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는데 증명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환경스페셜**」

- 위기에 처한 환경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고발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26일 보고서>

○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 이날 소비자리포트는 서민들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민간 건설사들의 꼼수를 집중 취재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임대주택 사업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 방송에는 민간업체만 나왔지만, 추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도 취재해 주면 좋겠다. <5월 14일 보고서>

○ 1TV 「**러브 인 아시아**」

- 국경을 넘어 꿈과 사랑을 이어가는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감동을 많이 받았던 시청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었고, 가족의 가치와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되길 바란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 지난 3월, KBS 스페셜에서 북한 사회의 시스템과 구성원에 대해 제작한 심층 탐사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북한을 버티는 힘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이었다. 본인은 1편을 무척이나 흥미롭게 시

청한 터라 2편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이다. 2편도 속히 방송해 주기 바란다. <6월 19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다양한 분야의 의학 정보를 상세하게 다루어 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시청자이다. 이해하기 힘든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서 무척이나 유익하다. 그런데 최근 본인 주변에 만성 신장 질환을 앓는 지인들이 많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기 어렵다고 한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및 예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이번 방송에서는 국가적 전략이 되어야 하는 산업 기술 보호 문제를 살펴보았다. 최근 산업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보호 정책은 그다지 좋지 않다. 기술을 유출하거나 빼앗기 쉬운 상황에 처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 2차 피해를 입는 벤처나 중소기업이 많은 형편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 방송을 보면서 개인의 아이디어가 함부로 다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추후에는 개인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어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 다뤄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7월 5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우리 사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시청자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직접 이야기해주어 더욱 와 닿는 면이 많았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편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9일 보고서>

○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배우 김영철이 동네 탐험을 하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로, 본인은 이 방송을 시청하며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처럼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고, 팍팍한 삶에 따뜻한 위안을 받은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명곡을 들을 수 있어 매주 월요일마다 챙겨보고 있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본인에게는 참 매력적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4일, 원로가수 최희준 씨가 향년 82세로 별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 가수로 불리었던 최희준 씨 특집을 제작해 주면 의미 있을 것 같다. <8월 29일 보고서>

○ 1TV 「특집 거리의 만찬 2부작」

- 세 명의 여성 진행자가 이슈의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2부작으로 방송됐다. 시사 프로그램은 딱딱하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어서 본인의 선입견을 뒤엎어주었다. 2부작으로 끝나서 아쉬움이 크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1TV 「취재파일 K」

-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과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했던 시청자다. 본인은 이 프로그램이 KBS 기자들의 취재 역량과 노하우가 결집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왔다. 유익한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안타깝고, 후속 방송을 제작해 준다면 본인 같은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KBS 일자리 프로젝트 사장님이 멋졌어요」

-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이 방송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며 통통 튀는 감각적 재미와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어 굉장히 유익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6부작으로 종료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추후 후속 방송을 제작해 준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구직자들의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1월 14일 보고서>

○ 1TV 「천상의 컬렉션」

- '천상의 컬렉션'을 꾸준히 시청한 시청자이다.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예인 호스트들의 생생한 프레젠테이션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면 감사할 것 같다. <12월 5일 보고서>

○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 2」

- 삶에 지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꿈에 대한 도전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김숙, 홍진경, 강예원, 한채영, 홍진영, 공민지, 전소미 7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걸그룹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재미있게 시청했던 프로그램인데 종료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3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김숙, 홍진경, 강예원, 한채영, 홍진영, 공민지, 전소미 7명의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리얼리티에 가까운 '걸그룹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멤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했는데 종료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3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6월 19일 보고서>

○ 2TV 「반려동물 극장 단짝」

- 반려동물과 사람들의 교감을 다룬 이야기를 통해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극적인 내용이 아닌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즐겨 시청했는데 종료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재난, 재해 등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했다.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좋았는데 종료되어 아쉽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기 바란다. <2월 22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흑기사」

-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전생과 현생에 얽힌 미스터리한 로맨스를 다루어 즐겨 시청했던 드라마이다. 섬세하

고 감각적인 연출과 아름다운 영상미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어 좋았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학교 2017」**

- 성장 드라마 '학교'의 일곱 번째 시즌으로 18세 고등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내어 즐겨 시청했다. 생활기록부, 수시전형 등 입시 문제를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다루어 흥미롭게 시청했었다. 후속으로 '학교 2018'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김과장」**

- 돈에 대한 천부적인 촉을 가진 김성룡(남궁민 분) 과장이 부정과 불합리와 싸우며,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는 오피스 코미디 드라마로 즐겨 시청했다.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통렬한 일침과 함께 부조리한 행동에 맞서 싸우는 경리부 직원들의 모습이 매우 신선해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종영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시즌 2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각막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하는 안구 앞쪽의 표면에 있는 투명한 막이고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신경조직이다. 최근 안구건조증, 각막염,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각막과 망막 관련 질환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눈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각막과 망막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자세히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1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쌈, 마이웨이」**

- 종영된 지 일 년 가까이 흘렀지만 마이너리그 청춘들의 로맨스가 아직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마지막회에서 고동만(박서준 분)과 최애라(김지원 분)가 결혼을 약속했고, 김주만(안재홍 분)과 백설희(송하윤 분)가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그 이후의 이야기로 시즌2를 제작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셀럽피디」**

- 셀럽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인터뷰, 실험, 체험, 추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다. KBS가 보다 친숙하고, 보다 유쾌하게 시청자에게 한 걸음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3부작 파일럿으로 편성돼 아쉬움이 남는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다. '전설의 고향'은 전설이나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납량 시리즈물로,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 더위를 잊는데 제격이었다. 더불어 마무리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유익한 면도 있었다. 시청자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2TV 「출발 드림팀」**

- 연예인과 강력한 일반인 도전자와의 뜨거운 한판 대결을 볼 수 있어 무척이나 좋아했던 방송이다.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프로그램이 종영된 이후, 재미있는 방송을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때의 감동과 재미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2TV 「우리동네 예체능」

-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건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보는 재미가 있었고, 강호동의 유쾌하고 활력 넘치는 진행을 보는 것도 즐거웠다.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이 증명되어 아쉽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2TV 「거기가 어딘데??」

- 예측 불가한 대자연의 위대함을 직접 체험하는 탐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 무척 신선했다. 초보 탐험대원으로 나선 지진희, 차태현, 조세호, 배정남 이 네 명의 남자가 막막한 환경 속에서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마지막 회까지 재미있게 시청했다.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보여주어서 방송 내내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콘셉트로 계속해서 방송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 <9월 6일 보고서>

○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 지난 2월 첫 방송된 '파도야 파도야'를 끝으로 'TV 소설'이 막을 내린다는 기사를 읽었다. 자극적인 전개나 톱스타 없이, 가슴 아픈 근대사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며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아침을 책임졌던 'TV 소설'이 폐지되어 굉장히 아쉽고, 조만간 꼭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2TV 「추석특집 어머니와 고등어」

- 올해 추석특집으로 제작된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가운데, 본인은 '어머니와 고등어'를 특히 감명 깊게 시청했다. 엄마 밥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작된 엄마 밥 기록 프로젝트인데, 그동안 주는 밥을 먹을 줄만 알았던 자식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엄마의 레시피를 기록한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다. 감동과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향후 정규 편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 <10월 8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해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어서 챙겨보았던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국의 맛집을 소개해주는 코너를 참 좋아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너무 아쉽다. 유익한 프로그램이므로, 추후에 다시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5일 보고서>

○ 2TV 「청춘불패 시즌2」

- 걸 그룹 멤버 8명이 대부도에서 펼치는 리얼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매주 주말마다 농장을 가꾸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정겨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시즌3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2월 5일 보고서>

○ 2TV 「유머 일번지」

- 주말 저녁에 방송되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임하룡, 심형래, 김형곤, 이봉원 등의 개그맨들이 출연해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현재「개그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그 시절의 향수를 되새길 수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방송해 주기 바란다. <12월 28일 보고서>

○ 1R 「행복한 시니어」

-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 빠짐없이 청취했던 애청자이다. 각종 노인성 질환의 증상과 치료, 예방법 등을 알려주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차후에 다시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1R 「김기자의 눈」

- 매일 저녁 퇴근길에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해왔다. 본인처럼 바쁜 직장인들은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데, 화제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뤄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방송이 종료되어 무척 아쉽다. 유익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므로, 조만간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 <12월 7일 보고서>

○ 2R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 운전을 하면서 자주 들었던 프로그램으로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청취자들의 사연도 재미있어서 즐겨 들었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이 종료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과 같은 방송은 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나쁜 오후시간에 즐겁게 청취 할 수 있도록 「이무송 임수민의 희망가요」 방송을 다시 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미워도 사랑해」

- 김행자(송옥숙 분)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정근섭(이병준 분)과 변부식(이동하 분)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따뜻한 가족애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내용이 반복되어 보기 불편하다. 밝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전개해 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내일도 맑음」

- 흡수저 무스펙 주인공 강하늬(설인아 분)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라고 들었다. 그런데 첫 장면에서부터 고졸 학력의 강하늬가 입사 면접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화두에 오르긴 했지만, 방송에서까지 우리 사회의 좋지 않은 단면을 부각시키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차후에는 밝은 전개로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바란다. <5월 9일 보고서>

○ 1TV 「비켜라 운명아」

- 이날 주인공 정진아(진예솔 분)가 돈에 팔려 영겁결에 혼인신고를 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상대는 시골 어촌 마을에서 제일가는 유지의 외아들 강대식(육동일 분)이었다. 강대식은 극 중에서 똥똥하고 못생겼으며 말더듬이에 머리 나쁜 캐릭터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정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어느 한 부분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TV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 한태성(임호 분)이 고달순(홍아름 분)에게 자신이 친부라고 거짓말하여 충격을 받은 달순네 식구들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한수(김진서 분)를 제거하기 위해 계락을 짜는 한태성의 모습이 나왔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악행이 점점 심해져 공감하기 어렵고 보기 불편했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인형의 집」

- 계속된 오해와 악연으로 앙숙이 된 흥세연(박하나 분)과 은경혜(왕빛나 분)가 서로의 뺨을 때리고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최근 작위적인 내용 전개와 자극적인 설정으로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많았다. 앞으로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남편 장명환(한상진 분)이 재벌 상속녀 은경혜(왕빛나 분)가 5년 전 저지른 뺨소니 사고를 약점 삼아 협박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장명환과 내연관계인 정신과 전문의 김효정(유서진 분)이 5년 전 뺨소니 사고 피해자인 꽃님(배누리 분)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직접 망각 치료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가수 지망생 오복실(조아영 분)이 온갖 삶의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꿈을 이뤄가는 내용으로 감명 깊게 보고 있다.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주인공과 이웃들의 삶을 따뜻하게 그려내어 참 보기 좋다. 그런데 황미진(노행하 분)의 자기중심적이고,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려는 태도가 보기 안 좋다.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전개로 교훈을 주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같이 살래요」

- 이날 방송에서는 박효섭(유동근 분)과 이미연(장미희 분)의 결혼이 이미연의 아들 최문식(김권 분) 때문에 위기를 맞는 모습이 그려졌다. 물론 본인도 박효섭과 이미연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지적하는 최문식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최문식이 웃어른인 박효섭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지나칠 때는 보기 힘들다. 최문식이 예의와 규율을 무시하는 인물에서 점차 도덕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전개를 보고 싶다. <6월 12일 보고서>
- 노년층의 로맨스에 공감하고 가슴 설레며 재미있게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미연(장미희 분)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내용이 식상해졌다. 거기다 전 남편 최동진(김유석 분)까지 나타나 이미연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점이 여타의 막장 드라마들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진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선하고 건전한 전개를 부탁한다. <8월 21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끝까지 사랑」

- 주연을 맡은 배우 이영아와 강은택의 연기가 좋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개도 마음에 들어 꾸준히 시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강현기(심지호 분)가 이복동생 강세나(홍수아 분)를 협박하는 등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 보기 불편하다. 아이들도 함께 보는 방송인만큼 가정불화 같은 소재나, 폭력적인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8월 14일 보고서>

○ 2TV 아침일일드라마「차달래 부인의 사랑」

- 본인은 평일 아침마다 'TV소설'을 재미있게 시청해왔던 시청자로, 'TV소설'을 이어 방영 중인 '차달래 부

인의 사랑'도 애정을 갖고 시청 중이다. 중년의 세 여자가 중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내용인데, 아직 극이 초반이어서 그런지 전개가 비현실적이고 공감이 가지 않는다. 재미만을 쫓는 전개 보다는,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하나뿐인 내편」**

-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있어서 매 회 놓치지 않고 시청 중이다. 그런데 김도란(유이 분)의 양어머니 소양자(임예진 분)의 수양딸에 대한 악행이 너무 지나치다. 친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일푼으로 쫓아내 놓고, 사기 당한 후 다시 돌아오는 설정은 너무 신파적이다. 재미도 좋지만, 도에 지나친 설정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본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시청자이다. 이날 방송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박금병(정재순 분)이 난리를 칠 때마다 수면제를 먹고, 약을 안 먹으면 동생을 만날 수 없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방영 되었다. 이러한 장면들은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병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정 직업을 매도하는 내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1월 5일 보고서>
- 이날 방송에서 김도란(유이 분)이 쓰러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런데 시어머니 오은영(차화연 분)이 며느리가 혹시 유전병을 앓고 있진 않을까 의심하며, 본인 친구 며느리도 혈우병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손자까지 혈우병에 걸려서 운동도 못 시킨다는 말을 했다. 혈우병이라고 운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혈우병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혈우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대사이다. 앞으로 특정 질병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사나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12월 13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우리말 겨루기」**

-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퀴즈 대결을 통해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엄지인 아나운서의 매끄러운 진행은 보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진행자가 진행하여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

- 요일별로 특화된 각각의 주제로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남녀 아나운서의 매끄럽고 재치 있는 진행으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다. 그런데 남자 아나운서 없이 방송이 진행되어 매우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평창올림픽 라이브」**

- 컬링 여자 예선 5차전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해설위원이 경기 분석과 무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대팀이 실수하길 바란다는 등 불필요한 발언을 하여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고 차분하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일요토론」

-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을 전망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내내 일부 출연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처럼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는 중립성 있는 출연자들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대중음악, 성악, 뮤지컬,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 진행자가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나와 다소 보기 민망했다. 추후에는 진행자 의상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중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공감할 수 있는 시대의 명곡을 들려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매번 출연하는 가수들이 중복되는 것 같아 다소 식상한 느낌이 든다. 신선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참신하고 실력 있는 젊은 가수들도 섭외해주면 좋을 것 같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 '남북 정상회담 평화 정착 해법은?'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한 패널이 방송 내내 구부정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발언을 하는 등 방송에 임하는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진중한 태도로 방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어린이날 기획 노래가 좋아」

- 어린이날을 맞아 '네 꿈을 펼쳐라' 특집이 방영된 가운데, 끼 많은 어린이들이 출연해 재능을 뽐냈다. 그런데 글로벌 키즈 치어리더 팀 '점핑엔젤스' 멤버들이 착용한 하의가 다소 짧은 듯 보였다. 어린 소녀들이니만큼 조금 더 단정한 의상을 입고 치어리딩을 하면 보기 좋을 것 같다. <5월 8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세월 속에 갇힌 명품을 소개하는 미술 감정 프로그램으로,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어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감정단으로 여자 기상캐스터가 참여했다. 기상캐스터는 최종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장구를 네 번이나 댄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날도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소감을 전하는 등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재미를 더했다. 그런데 짧고 타이트한 의상은 조금 민망했다. 아이들도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추후에는 건전한 의상을 착용해 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지식도 얻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패널들의 해박한 역사 지식과 재치 있는 입담이 보는 재미를 더해주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조선 유교의 거성 송시열에 대해 다루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3천 번 이상 이름이 거론되고, 4명의 임금을 모셨던 강직한 유학자 송시열에 대해 패널들이 '송시열'이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송시열 선생'이나 이름 앞에 호를 붙여 '우암 송시열'이라고 불렀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인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어르신들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여러 지혜를 얻을 수 있어 무척이나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늘 국악인 남상일 씨와 윤지영 아나운서로 패널이 정해져 있어 지루한 느낌이 든다. 매회 다른 패널을 섭외해 더욱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으로 신선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

-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나가는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느껴져 신선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는 과거 거짓 영창 발언 등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고, 더욱이 본인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이 과연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상을 지닌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 평일 밤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는 과거 여러 번 정치색을 드러냈던 인물로, 특정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이 과연 균형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또 최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김제동 씨의 고액 출연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방송국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출연료라 할지라도,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추후 개편 시에는 보다 역량을 갖춘 진행자로 교체해 주기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바쁜 일상을 보내고 나면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오늘밤 김제동'에서 그날의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주어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개그맨 출신인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철저한 방송준비가 따라야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방송준비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김제동 씨가 안 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하게 방송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 <11월 14일 보고서>
- 오늘의 이슈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나가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그날의 이슈들을 짚어주는 점은 유익하다. 그러나 김제동 씨는 시사 프로그램을 맡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번 자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제작진과 진행자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12월 27일 보고서>

○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종전선언의 시기와 조건,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여야 정치인들이 출연해 토론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흥미롭게 시청했다. 그런데 패널들이 서로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등 예의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10월 1일 보고서>

○ 1TV 「김포공항 개항 6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 이날은 김포공항의 개항 60주년을 축하하는 무대로 꾸며졌다. 김포공항은 우리나라 항공 교통과 항공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만큼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더욱이 장미여관, 소유, 노라조, 우주소녀 등

젊은 실력과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미진진했다. 그런데 젊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가수 위주로 섭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 및 장르의 가수를 섭외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11월 6일 보고서>

○ 1TV 「2018 TV는 사랑을 싣고」

-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만남을 성사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매 회 감동을 받으며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취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를 연예인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특별한 사연을 지닌 일반인에게도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17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다양한 맛집 소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다루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조충현, 이슬기, 도경완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근감 있는 진행이 잘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세 명의 아나운서 없이 방송이 진행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오전에 다양한 현장 소식과 함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특히 한상헌, 이지연 아나운서가 침착하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어 보기 좋았다. 그런데 두 명의 아나운서 없이 방송이 진행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1월 24일 보고서>

○ 2TV 「여기는 평창」

- 최민정, 심석희, 이유빈, 김예진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전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최민정 선수가 체력적으로 무척 힘든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여 보기 불편했다.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겠지만 앞으로는 선수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평창 동계올림픽 루지 여자 싱글 1차 경기를 시청하였다. 그런데 진행자가 곡선 구간에서 썰매가 부딪혀 공중에 뜬 오스트리아 선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양탄자”라고 발언하여 듣기 불편했다. 루지는 자칫 잘못하면 썰매가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및 부상 위험이 크다.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여자 컬링 결승전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중계되었다. 아나운서와 해설위원이 컬링 경기의 복잡한 규칙과 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귀에 쏙쏙 들어왔다. 특히 ‘이재호의 컬링 노트’ 자료화면과 함께 스톤의 위치와 작전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 매우 좋았다. 좋은 진행을 해주어 감사하다. <2월 27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 아이돌 가수를 비롯해 평소 TV에서 접하기 힘든 음악가, 연주가가 출연하여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 날 그룹 마마무의 멤버인 화사가 속옷처럼 보이는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다소 선정적이라 보기 민망했다. 추후에는 출연자 의상에 신경 써 주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딸이라 부르며 집착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29세 여동생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여동생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빠에게 여동생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설명하던 중 '우리 아들 고추 어디 보자~'라는 표현을 하여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고려해 진행자 발언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 <3월 29일 보고서>

○ 2TV 「KBS 경제타임」

-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드 보복 해제 3대 조치의 기대감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기자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 설명하던 중 "선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공영방송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2TV 「2018 평창 피겨스타 아이스쇼」

-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아이스쇼 '2018 평창 피겨스타 LG ThinQ 아이스 판타지아'가 방송되었다. 차준환, 민유라, 자기토바, 메드베데바 등 세계적인 피겨 스타들의 갈라 연기를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아이스쇼를 조용히 감상하고 싶는데 진행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추후에는 간단명료한 해설로 방송해 주기 바란다. <4월 23일 보고서>

○ 2TV 「하룻밤만 재워줘」

- 이태곤이 김종민, 한보름과 열정의 나라 스페인에서 현지인 후안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후안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 보였다. 현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상까지 공유하자는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기초적인 대화는 가능하도록 현지어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월 4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17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결혼을 앞둔 류필립, 미나 커플이 가수들을 초대해 집들이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런데 미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류필립 혼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적인 노력은 부부 사이에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다. 비록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4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의 활약으로 전 세계에 K-POP 팬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무엇보다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하는 '뮤직뱅크' 같은 가요 프로그램이 아이돌 가수들의 실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방송을 시청하는 연령층이 주로 청소년인데, 출연진들의 의상 및 춤이 다소 선정적이라 우려스러울 때가 많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보다 건전한 무대를 꾸며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생활정보, 시사, 음식, 해외소식 등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 주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진행을 맡았던 이선영 아나운서가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잘 빠르게 전

달해주어 더욱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방송부터 진행자가 바뀌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지금까지 수고한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7월 4일 보고서>

○ **2TV 「그녀들의 여유만만」**

-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30대들에게 스스로 올바른 삶과 행복을 찾아보는 장을 제공하는 30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여섯 명의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본인은 그 중에서도 이슬기 아나운서가 눈에 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가 보기 좋고, 상큼한 진행도 매력적이다. 앞으로도 이슬기 아나운서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8월 16일 보고서>

- 30대들에게 올바른 삶과 행복을 찾아보는 장을 제공하는 30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여섯 명의 아나운서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시청 중 특정 아나운서가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이 자꾸만 눈에 띄어 좋지 않았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추후에는 올바른 자세로 진행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8월 17일 보고서>

○ **2TV 「추석특집 쌤의 전쟁」**

-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인터넷 강사 네 명이 출연해서 자신들의 분야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뒤, 강의 배틀을 통해 최고의 강사를 뽑는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 네 명의 강사가 어렵게만 느꼈던 공부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 유익했다. 그런데 스타 강사라서 그런지 화려한 옷들을 착용하여 위화감이 들었고, 사교육을 홍보하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도 들었다. 공직에 근무하는 교사가 아닌,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며 철저히 몸값으로 오고 가는 인터넷 강사를 섭외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9월 2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봉숭아 학당'은 교실을 무대로 다양한 캐릭터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코너이다. 특히 절대로 영어를 쓰지 않는 김성원 씨의 캐릭터가 재미있어서 눈여겨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다양한 가수 부류에 대해 알아 보던 중, '듀엣 가수'가 나오자 '두 마리 가수'라고 표현했다. 웃음을 주려던 의도는 알겠으나, 사람에게 '마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10월 4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해당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배우 조윤희 씨와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새롭게 내레이션을 맡았다. 그런데 이수지 씨가 방송 내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 앞으로 내레이션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역할 정도로만 해주기 바란다. <11월 20일 보고서>

○ **1R 「김홍성의 생방송 정보쇼」**

- 뉴스와 함께 인문학과 건강, 스포츠까지 다양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어 좋았다. 김홍성 진행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인데 김홍성 진행자가 아닌 다른 진행자가 계속 진행하여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R 「어업기상통보」**

-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바다의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그

런데 기상 통보관의 음성이 낮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내용의 전달력이 떨어진다. 앞으로는 기상 정보를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1월 17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 '남윤선의 미래생활사전' 코너에서 '차량 공유' 주제로 방송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패널이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R 「뉴스와 화제」

- 국도변에서 유기견 구조활동을 벌이다 소방차와 대형트럭이 충돌해 소방관과 임용을 앞둔 교육생 등 3명이 사망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진행자가 뉴스가 끝날 무렵 "누가 개를 도롯가에 묶어놓고 버리고 갔는지 처벌은 못하더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사고의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R 「KBS 공감토론」

- 지난 4월 20일까지 진행을 맡았던 백운기 앵커의 토론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청취했던 애청자이다. 그런데 백운기 앵커의 하차 이후 아직까지 고정 앵커 없이 매 주 진행자가 바뀌고 있다.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은 진행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운기 앵커와 견줄만한 훌륭한 자질의 앵커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 '금요 건강 토크'에서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세상을 놀라게 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원장이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했던 '촌충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는데, 설명 중 신체에 기생하는 촌충을 마치 애완동물이라도 된다는 듯 계속해서 '애네들'이라고 지칭했다. 앞으로는 '촌충'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해 주기 바란다. <5월 14일 보고서>

○ 1R 「김기자의 눈」

- 현충일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이 패널로 출연해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애국지사들의 유해를 모신 효창공원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보람 있었다. 그러나 패널이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의 이름을 존칭 없이 그대로 언급하는가 하면, 본인의 정치색과 가치관을 여과 없이 드러내 듣기 불편했다. 추후에는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이날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출연해 비핵화 협상 전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본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와 주장을 적절히 섞어 가며 이야기 해주어 청취자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추후에도 방송을 통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이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도시 건축가 김진애 박사의 진행 태도가 아직은 조금 미숙하게 느껴진다. 이를테면 대화 도중 끼어들어 패널의 말을 가로막거나,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식이다. 부정확한 발음도 편안한 청취에 방해가 된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가다운 태도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1R 「최강욱의 최강시사」

- 아침 출근 시간대 편성되어 있어, 매일 아침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최강욱 변호사가 방송 내내 본인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공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추후에는 다양한 견해를 지닌 시청자들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어 평일 오전 출근길에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해왔다. 그런데 이날부터 진행자가 김원장 씨에서 김방희 씨로 교체 되었다. 본인은 김원장 씨의 명쾌하고 합리적인 진행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청취했던 애청자인데, 진행자가 교체 되어 아쉽다. 김원장 씨가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 개편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9월 6일 보고서>

○ 1R 「생방송 일요일 아침입니다」

- 일요일 아침마다 교통 및 날씨 상황을 실시간으로 소개해 주어 청취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이다. 본인은 그 중에서도 3부 코너인 '생활법률 with 윤경호'를 애청한다. 윤경호 변호사가 최신 판례를 통해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늘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청취하겠다. <10월 29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각 지역의 소식을 전달해 주어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이 시각 주요뉴스'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보도를 들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바른미래당 이용주 의원'이라고 잘못 소개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2R 「오유경의 해피타임 4시」

- 선곡되는 가요 음악과 오유경 아나운서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진행이 좋아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오유경 아나운서가 아닌 다른 진행자가 진행하여 매우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2R 「김난도의 트렌드 플러스」

- 매일 국내외 트렌드와 유용한 경영 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진행자인 김난도가 트렌드 전문가의 분석으로 경영인과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들려주어 좋았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 하차한다는 소식을 접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동안 고생한 진행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1월 22일 보고서>

○ 2R 「박철의 진지한 라디오」

- 옛 친구처럼 편안한 음성을 기대하며 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교체되어 놀랐다. 그간 박철의 편안하면서도 재치 있는 진행이 재미있어 방송을 챙겨 들었던 애청자로서, 박철의 갑작스러운 하차에 아

쉬움이 남는다. <5월 9일 보고서>

○ 2R 「출발! 해피FM 김성은입니다」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발! 해피FM 김성은입니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이다. 정말 재미있게 청취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 김성은 아나운서의 다정하고 편안한 진행이 매력적이라고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함께 해주기 바란다. <6월 4일 보고서>

○ 2R 「강서은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밤 시간대와 적절히 어우러지는 선곡으로 즐겨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강서은 아나운서를 대신해 김민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는데, 진행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편안한 진행 덕분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 <6월 22일 보고서>
-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이 방송을 청취한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강서은 아나운서의 다정한 음성과 부드러운 진행이 방송에 재미를 더하는 느낌이다. 이 방송을 통해 좋은 진행자를 알게 되어 즐겁고,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만나고 싶다. <9월 17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매일 저녁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팝송을 들으며 하루를 편안하게 마감하는 청취자이다. 익숙한 음악과 더불어 진행자 이상호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음성과 차분한 진행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늘 재미있고 좋은 방송을 해주어 감사하다. <12월 26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우선 2018년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DJ를 맡은 배우 김미숙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덕분에 친근하고 편안한 음악으로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미숙 씨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해 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청취자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좋은 방송 만들어 주기 바란다. <5월 30일 보고서>
- '장일범의 가정음악'에서부터 청취해온 오랜 청취자이다. 장일범 음악평론가가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익숙한 곡 위주로 선곡하고, 해설까지 해주어 정말 즐겁게 청취해왔다. 그런데 진행자가 배우 김미숙 씨로 변경된 후 음악에 대한 해설이 현저히 줄었다. 클래식은 어려운 음악 장르이다. 연예인이 아닌 전문가가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추후 개편 시 참고해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매일 아침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진행을 맡은 김미숙 씨의 음성이 너무 낮고 힘이 없어 듣는 사람마저 힘이 빠지는 기분이다. 또한 선곡에 따른 해설도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후에는 청취자들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조금 더 활기차게 진행해 주고, 곡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주기 바란다. <7월 16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본인은 클래식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이 클래식으로 가는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 좋은 음악 이외에도 DJ 전기현 씨의 풍부한 음성과 따뜻한 멘트가 너무 매력적이다. 좋은 음

악과 좋은 진행자로 인해 정서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1월 16일 보고서>

○ 2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 진행자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이 좋아 꾸준히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할 때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려주어 듣는 재미를 더해준다. 앞으로도 청취자와 교감하는 좋은 모습을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1월 29일 보고서>

○ 2FM 「레이나의 굿모닝 팝스」

- 팝송과 영어회화를 접목시켜 즐거운 영어 학습을 유도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했다. 특히 이전 진행자인 이근철과 존 발렌타인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듣기 좋았다.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 개편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월 9일 보고서>

○ 2FM 「이홍기의 키스 더 라디오」

-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과 토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진행자인 이홍기의 유쾌한 진행과 활기찬 목소리에 쌓인 피로까지 풀리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앞으로도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진행자가 되길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FM 「온주완의 뮤직쇼」

- 음악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진행을 맡았던 온주완이 이날 방송을 끝으로 하차했다. 그동안 온주완의 편안한 진행에 많은 청취자들이 위안을 받았는데 아쉽다. 그동안 고생한 진행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5월 2일 보고서>

○ 2FM 「악동뮤지션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

- '볼륨을 높여요'는 1995년 방송을 시작한 음악전문 프로그램으로, 이본, 최강희, 메이비, 유인나 등 다수의 스타 DJ를 배출했다. 본인 또한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청취해온 애청자이다. 그런데 현재 DJ를 맡은 수현은 예전 진행자들에 비해 나이가 너무 어리다보니, 다양한 연령대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에 공감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추후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연륜과 경험이 쌓인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 <8월 7일 보고서>

○ 2FM 「김승우 장항준의 미스터라디오」

- 배우 김승우와 장항준 감독의 입담이 재미있어 방송을 자주 청취한다. 두 남자가 티격태격하며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두 진행자가 너무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 또한 진중하게 방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마치 사석에서 사담을 나누는 것 같은 태도가 별로 좋지 않다. 귀중한 시간을 쪼개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방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 2FM 「이수지의 가요광장」

- 이날 '우먼 토크' 코너에 모델 이현이와 이혜정이 출연해 '남편,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모델 이현이가 아는 언니에게 들었다면서, "남편이 개보다 낫다. 똥오줌은 가리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진행자와 두 출연자가 웃음을 터트렸는데 청취하던 중 불쾌함을 느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배우자를 개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신중히 생각하고 발언하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5. 공정성 |

○ 1TV 「평창올림픽 라이브」

- 컬링 혼성 예선 7차전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경기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해설자가 지나친 감정이입과 “실수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등 한 쪽으로만 치우친 발언을 하여 듣기 불편했다.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중계해 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KBS 혁신프로젝트 끝까지 간다」

- 세대와 직업이 각기 다른 일반인 시청자 평가단 6명이 KBS 관행,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해 비평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일반인 시청자 평가단이 어떤 기준으로 섭외된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방송 내용도 전 정권에 대한 평가나 비판 위주로만 방송이 되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 있는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4시 뉴스집중」

- 지난 3일에 서울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정의당 김종민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붕괴 현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안철수, 김종민, 박원순 후보의 인터뷰는 방송되었는데, 김문수 후보의 인터뷰는 진행자가 내용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공정한 처사로 여겨지니, 추후에는 공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 평화의 섬 제주도가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다룬 이날 방송을 주의 깊게 시청했다. 방송은 목숨을 걸고 살 곳을 찾아온 그들에게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불과 반세기 전 대량의 난민을 배출했던 한국이 야말로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각종 범죄 발생과 내국인과의 일자리 다툼 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추후에는 상반된 주장을 보다 공정하게 다뤄주기 바란다. <6월 25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이날 방송에는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신지예 씨가 패널로 출연해, 혜화역 여성 시위 논란에 대해 고정 패널들과 함께 토론했다. 그런데 시위 참가자들을 옹호하는 발언만 하고,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모욕적인 구호를 외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여 다소 편파적으로 보였다. 추후에는 상반된 입장의 패널을 두루 섭외해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 이날 방송에서는 노회찬이 걸어온 정치역정과 인간적인 매력을 되돌아보고, 대중정치인으로서 그가 남

긴 과제를 살펴보았다. 물론 서민을 대변하며 촌철살인의 풍자로 사랑받던 대중정치인 노회찬을 애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미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인물이므로, 방송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해주시기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 이제는 뉴스도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날은 유튜브 저널리즘이 대안 언론인지 디지털 파시즘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출연자들은 유튜브가 대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서 일종의 자폐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라는 식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유튜브의 시장점유율과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만약 유튜브가 가짜 팩트를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처럼 플랫폼 시장에서 급부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추후에 유튜브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룬 방송도 한 번 제작해 주면 좋을 것 같다. <8월 28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

-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신선하지만, 진행을 맡은 김제동 씨의 자질에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 같지 않고, 발음이나 음성 등 많은 부분에서 진행자로의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SNS 의혹 보도와 관련해 편파적이었던 제작진의 태도도 조금 실망스럽다. 앞으로는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이날은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제주에 정착하려는 오백여 명의 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제주도에선 신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문화적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의 분위기가 경색되는 등 여러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난민 수용 반대 시위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의 보도와, 예멘 난민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예멘 난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라도 보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7월 5일 보고서>

○ 2TV 「추적 60분」

- 이날 방송은 예멘 난민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방송은 과거 한국전쟁을 겪으며 수많은 난민을 양산했던 우리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시점에서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방송은 공정하지 않다. 또한 각종 범죄 발생 등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추후에는 상반된 주장을 공정하게 다뤄주시기 바란다. <8월 3일 보고서>

○ 2TV 「2018 KBS 가요대축제」

- 이날 엔딩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가요대축제'는 김연자 씨를 마지막에 배치했다. 그러나 엔딩 직전 무대는 엑소였다.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엑소의 전이었다. 이는 시청자가 보기에 거대 기획사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는 대형 기획사 소속 가수들을 위한 축제가 아닌, 올 한해를 빛낸 가수들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12월 31일 보고서>

○ 1R 「최강욱의 최강시사」

- 아침 출근 시간대 편성된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전 출근길에 잘 듣고 있다. 그런데 매주 화요일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는 '진보의 향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 철학만 주장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이보다는 진보와 보수 쪽 인사가 함께 출연하여 양측의 입장을 고루 들을 수 있는 코너로 확장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6월 20일 보고서>

○ 1R 「김용민 라이브」

-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김용민 라이브'를 즐겨 청취하고 있다. 시사와 교양, 문화가 접목된 프로그램이라 하루를 마감하며 듣기에 적합한 방송이다. 그런데 공정해야 할 진행자가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을 비판할 때가 많아 편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저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을 청취자들을 위해, 앞으로는 공정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11월 7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KBS 뉴스라인」

- 정부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참사 철거민들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자막에서 '용산참사'가 아닌 '용사참사'로 잘못 표기되었다. 추후에는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동계올림픽 대회 종목의 특징들과 평창 올림픽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방송되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36회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36회'가 아니라 '23회'가 맞다.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조선의 수도인 한양 도성 편이 방송되었다. 패널들이 역사적 사실이 담긴 자료화면과 함께 한양 도성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다. 그런데 자료화면에서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1952년'으로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 추후 방송에서는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TV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2부작 드림걸즈」

- 남아공 피겨 국가대표를 거쳐 코치로 활동 중인 타마라 제이콥스와 피겨 국가대표인 첼시 제이콥스 자매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방송 초반에 두 사람의 대화를 번역한 자막에서 애슐리 와그너는 '미국'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데 '독일'로 잘못 표기되었다. 추후 방송에서는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19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만나 과거

사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故 박종철 열사가 숨진 사건은 1987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31년 전'인데, 앵커가 '21년 전'으로 잘못 발언했다. 앞으로는 실수 없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 보도를 보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응답자의 83.1%가 '잘했다'로, 14%가 '잘못했다'로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 사용된 그래픽 상으로는 14%가 차지한 비중이 수치에 비해 현저히 높게 표기됐다. 앞으로 자료 화면 사용 시 명확한 표기 당부한다. <5월 11일 보고서>

- 지난 달,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5년이던 보호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곧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고, 그럼 정부가 새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보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시행 일자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

- 북미회담 취소 발표 이후, 한미 두 나라 외교장관이 북미 간 대화 여건 조성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한편 자막 하단 뉴스에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 놓치지 말자'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자막에 표기된 '놓치지'는 '놓치지'로 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막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5월 28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을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그런데 '태극무궁 훈장'이 '태국무궁 훈장'으로 '깎아 세운 절벽'이 '깎아 세운 절벽'으로 잘못 표기된 자막을 보았다. 앞으로는 사소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1TV 「팔도밥상」

- 이날 '팔도밥상-경기도 4편'의 재방송을 시청했다. '강화 나들길 밥상'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의 밥상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1995년,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속함에 따라 강화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이 되었다. 그러므로 강화도가 경기도라는 부제 및 화면 상단의 자막을 수정해 주기 바란다. <6월 21일 보고서>

○ 1TV 「기상특보」

- 남녀 아나운서의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이 좋아 매일 아침 '아침마당'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 중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기상특보'를 보여주었다. 폭염경보 관련 소식이었는데 자막에 '경북(통영)'으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통영은 경상남도에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2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이날 '시사기획 창'은 국내 혈액 시장을 독점하며 담합과 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적십자 혈액

관리본부를 추적했다. 최근 적십자사의 혈액관리를 놓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데, 혈액 관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지 취재하고 보도해주어 고맙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적십자 측 혈액백 제조허가증을 보여주며 '항응고액 포도당을 미국 약전 기준대로 1리터에 31.9g을 넣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내레이션이 나왔는데, 서류에는 3.19g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스러웠다. 추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 주기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이날 '로미나 고미호의 한국 속으로'에서는 '거제에서 살아보기 2부'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로미나, 고미호가 경남 거제에서 떠날 때, 묵었던 집의 어머니가 "딸 보내는 것 같다"며 서운해 하자 하단의 '서운한 마음에 대문 밖까지 마중'이라는 자막이 표기 되었다. 여기서는 '마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배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하단 자막에 '이해찬 총리'로 표기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한 뉴스에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반려동물 전문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물약국 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자가 진료로 동물약국에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금지되었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간호조무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할머니의 사연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왼쪽 상단 자막에는 '요양원'이라고 표기되었고 하단 자막에는 '요양병원'이라고 나와 혼란스러웠다.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생활시설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3월 27일 보고서>

- 밤사이 일어난 사건사고는 물론, 생활의 정보와 문화 정보까지 알 수 있어 방송과 함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2부 순서에서 '캔을 버리지 못하는 남자의 사연은?'이라는 코너를 통해 세계 각국의 캔을 수집하는 한 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88올림픽 기념 캔을 아낀다며 보여줬는데, 하단의 자막에는 '1998년 서울 올림픽'이라고 표기됐다. 88올림픽은 한강의 기적을 전 세계에 알렸던 소중한 국가 행사이다. 아이들도 함께 보는 방송이니만큼 추후에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6월 1일 보고서>

○ 2TV 「다큐멘터리 3일」

- 1분 1초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공영홈쇼핑의 72시간을 보여주었다. 방송에서 소개한 공영홈쇼핑은 판매 루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 제품을 위한 전문 채널로, 수수료도 다른 홈쇼핑보다 현저히 낮다고 한다. 그런데 이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 좋은 점만 부각시켜 현실성이 떨어

지는 느낌이었다. 추후에는 양면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사실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15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20주년 특집 & 2018 상반기 결산」

- 이날 '뮤직뱅크'는 20주년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진행됐다. 'Party Twenty'라는 주제로 꾸며졌는데, 평소 보다 더욱 화려해진 무대를 감상할 수 있어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걸 그룹 '여자친구'의 그룹명이 '트와이스'로 잘못 표기되어 안타까웠다. 가수명이나 그룹명 자막 표기 시, 해당 가수의 팬이 서운하지 않도록 오류 없이 정확히 표기해 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이날 '연예수첩'에서는 '초복 날 함께 삼계탕을 먹고 싶은 스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4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 본인은 이미 여러 기사로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했고 배우 정해인 씨가 48표를 받아 10% 지지율로 3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방송에는 18% 지지율로 표기되었다. 추후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2TV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다채로운 생태계와 흔히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늘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막에 'Tracking'라고 표기되어 있어 의아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진하다', '이동하다', '길고 힘든 여행을 하다'라는 뜻을 지닌 'Trekking'를 사용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단어의 뜻을 확인한 후 자막을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 <9월 5일 보고서>

○ 2TV 「속보이는TV 인사이드」

- 이날은 우애 좋던 사 남매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뤘다. 어느 날 갑자기 막내 권복남 씨가 핏자국을 남긴 채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형제들과 함께 굵은 복권이 20억 원의 거금에 당첨되었고 이를 혼자 쓰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자막에 '실종된 막내동생'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막내동생'이 아니라 '막냇동생'이 올바른 표현이다. 자막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9월 10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가수 박경이 5천만원에 도전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정답은 '오수의 오수개'였다. 뒤이어 '전라남도 오수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관련된 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오수는 전라북도에 있는 면이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1월 15일 보고서>

○ 1R 「행복한 시니어」

- '생생 시니어 정보' 코너에서 서울 도봉구에서 도시양봉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안내가 되었다. 방송을 듣고 수강생 신청을 하기 위해 도봉구청에 문의했더니 도봉구 구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쉬웠다. 추후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7. 시청자권익 |

○ 1TV 「6시 내고향」

- 이날 우리 고장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는 '시시콜콜 소식통' 코너에서는 전남 나주에서 완숙 꿀을 따는 양봉장인 부자를 소개했다. 그런데 시청자들에게 완숙 꿀 연락처가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본인 자녀의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어 큰 피해를 겪었다. 추후에는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6월 22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이날 '추적 60분'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의 진실을 파헤치고,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들의 지난 20여일을 밀착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낸 어느 유치원 교사의 충격적인 증언도 들려주었다. 그런데 모자이크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원장에게 밉보이면 업계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제보자를 보호해 주기 바란다. <10월 30일 보고서>

| 8. 프로그램 호평 |

○ 1TV 「신년특선 UHD 다큐 백두산 제1편」

- 국내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산인 백두산의 자연과 생태를 소개하였다.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백두산에 담긴 갖가지 이야기와 함께 조명하여 더욱 좋았고 흥미로웠다. 백두산의 사계절과 웅장한 비경을 보면서 꼭 한 번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UHD 특집다큐 화산섬 오름꽃」

- 제주의 곳곳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 멸종 위기종을 초고화질 화면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한라산, 곳자왈, 습지, 오름, 조간대에 이르기까지 쉽게 볼 수 없는 수많은 동식물과 제주의 풍습 등을 상세히 보여주어 매우 좋았다.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1월 4일 보고서>

○ 1TV 「특집다큐 스포츠로 하나 되는 코리아」

- 남북 최초로 구성된 탁구 단일팀 코리아의 활약과 분단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통일축구대회 등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어 유익했다. 남북 스포츠 교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방송이었다. <2월 2일 보고서>

○ 1TV 「3.1절 특집다큐 2부작 이방인과 3.1운동」

- 1919년 3월 1일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만세운동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까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들의 활동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이다.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 캐나다 선교재단 등에서 발굴한 3.1운동 자료를 포함한 편지, 일기 등 희귀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일본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일제 통치의 부당함과 반인륜적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선교사들의 노력

과 역할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좋은 방송이었다. <3월 9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특집 국민프로젝트 치타」

- 국민프로젝트 '치타'는 '치매 타파'의 줄임말로 현재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치매환자 현주소를 살피고 치매 타파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매의 증상과 다양한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뇌 운동에 도움이 되는 댄스까지 소개해 주어 유익했다. 치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3월 6일 보고서>

○ 1TV 「특집다큐 자카르타에서 온 손님」

- 평창 동계올림픽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모국에서 피겨스케이팅 관람, 스키 체험, 경복궁 방문 등 소중한 추억을 쌓는 모습에 마음이 짱하고 보기 좋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4월 6일 보고서>

○ 1TV 「명견만리」

- '미투 운동'을 주제로 페미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교수와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김형준 교수가 출연하였다. '미투 운동'이 가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모두의 문제임을 지적해 주어 좋았다. 또한 성차별이 없는 나라 1위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성차별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 주어 유익한 방송이었다. <4월 24일 보고서>

○ 1TV 「특선다큐 푸른 하늘을 위한 투쟁」

- 수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요즘,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중국의 오염 물질에 대해 다뤄주어서 유익했다.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국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4일 보고서>

○ 1TV 「신 노년 시대 4부작」

-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는 혼자만의 인생에 대해 다룬 방송을 잘 보았다. 고독사를 비롯한 노인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방송이었고, 독거노인을 향한 관심을 일깨워 주어서 감사하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진실을 향한 거친 질문'을 기치로 새롭게 선보이는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첫 방송된다고 해서 기대감을 품고 시청했다. 이날 방송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출연해 6.13 지방선거 이후 정계 개편 방향을 전망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익해 만족스러웠고, 앞으로도 주의 깊게 시청하겠다. <6월 2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6.25전쟁 제68주년 추념식」

- 6.25를 맞아 6.25 전쟁 추념식 중계방송을 보았다. 방송을 보는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을 가슴 깊이 추모할 수 있었다.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새겨 국가의 소중함과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당 추념식을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6월 27일 보고서>

○ 1TV 「특집 3부작 푸드테크 서바이벌, 미래식품왕」

- 식품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가가치까지 창출해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찾는 이 프로그램을 무척이나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앞으로도 농수축산업 등에서 재능 있는 인재들이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방송을 많이 제작해 주면 좋겠다. <7월 2일 보고서>

○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 이날 '심야토론'에서는 현재 유럽에서 돌풍이 불고 있는 세대교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프랑스의 마크롱과 캐나다의 트뤼도 등이 왜 한국에서는 안 나오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날 방송의 출연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공감하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설득, 경청, 공감으로 사회 쟁점과 해법에 대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정통 토론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여름특집 걸어서 세계속으로」

-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심신이 지친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불볕더위를 식혀주는 차가운 폭포수를 보여주어 모처럼 상쾌한 기분을 맛보았다.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에 다양한 폭포들과 거대한 물줄기를 볼 수 있게 해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위에 지친 시청자들을 위해 시원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광복절 특집다큐」

-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이야기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의사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의사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어 관심 갖고 시청했다. 의사라는 안정된 생활보다는 빼앗긴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수많은 의사들, 그 중 몽골의 이태준, 블라디보스톡 광병규, 사천성의 나창현 3분의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알 수 있어 좋았다.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뜻깊은 방송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한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특집 고려건국 1100년 2부작」

-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10여 년간 계속되어온 남북 공동 프로젝트 고려 궁성 만월대 발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남북 발굴 단원들이, 이념과 관계없이 동료애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니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9월 4일 보고서>

○ 1TV 「청산에 살어리랏다」

- 두메산골 산허리에 위치한 경북 울진의 '굴구지 마을'을 보여주었다. 봄나물을 찾아 깊은 산까지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취나물, 등굴레, 고사리 등을 꺾어서 음식을 장만한 후 함께 봄나물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박하지만 함께 나누는 일을 즐기는 굴구지 마을을 보며 잊고 있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푸근하고 따스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9월 17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

- 지난 7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 후 오랜 시간

이 지났지만, 이날 '추적 60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성민이 사건'의 의혹들을 추적했다. 본인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해당 방송을 보고 분노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건을 다시 검증해보고, 사건이 남긴 과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0월 15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이날은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 가구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사회상을 반영한 주제 선정이 무척 돋보였다. 특히 의료비와 요양비를 따로 마련하라,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라, 일할 수 있으면 일하라 등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어 도움이 됐다.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0월 25일 보고서>

○ **1TV 「2018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U-15) 축구대회가 29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막했다. 이날은 대회 후원사인 하나은행 중등연맹 선발전이 북측 여명체육단과 일전을 펼쳤다. 방송을 통해 경기를 관람했는데, 남북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무척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감동적인 경기를 중계해 주어 감사하다. <11월 1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모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부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따뜻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송을 제작해 준 KBS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12월 19일 보고서>

○ **2TV 「철부지 브로망스 - 절찬상영중 -」**

- 배우 성동일, 고창석, 이준혁, 이성경이 영화 불모지를 찾아가 직접 야외극장을 만들고 영화를 상영하는 모습을 담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영화를 자주 접할 수 없었던 충북 단양군 애곡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영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기획의도가 매우 좋았다.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1월 19일 보고서>

○ **2TV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 전·현직 아이돌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 즐겨 시청한다. 기회가 부족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무대와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다.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1월 23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흑기사」**

-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전생과 현생에 얽힌 미스터리한 로맨스를 다루어 매회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다. 이 날은 자신을 봐주지 않는 문수호(김래원 분)의 모습에 질투와 광기가 폭발한 샤론(서지혜 분)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매회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흥미진진했다. 방송 말미에 한강에서 투신했던 샤론이 기억을 잃은 채로 다시 나타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된다. <2월 2일 보고서>

○ 2TV 「여기는 평창」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에 출전한 이상화 선수의 경기를 시청하였다. 아나운서와 해설위원의 간단명료한 해설로 경기의 흐름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해 주어 좋았다. 경기가 끝난 후 이상화 선수와 일본 고다이라 나오 선수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축하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의 올림픽 중계방송도 기대가 된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주말연속극「황금빛 내 인생」

- 최재성(전노민)과 노명희(나영희)가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최도경(박시후 분)은 서태수(천호진 분)의 도움으로 대표이사 취임에 성공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서태수가 위암 말기인 자신의 몸 상태를 숨기고 서지안(신혜선 분)에게 핀란드 유학을 종용하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다. 빠른 전개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 곧 종영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 마지막 회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3월 5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라디오 로맨스」

- 대본에 특화된 톱스타가 라디오 DJ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스 드라마로 즐겨 시청한다. 우지우(최민영 분)가 자신 때문에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죄책감에 시달렸던 지수호(윤두준 분)와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송그림(김소현 분)의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보는 재미를 더해주어 좋았다. 자극적인 소재가 아닌 따뜻한 내용으로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 좋았는데 종영된다고 하니 아쉽다. 마지막 회까지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건반 위의 하이에나」

-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원 차트 생존기와 음원 제작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다. 매회 각기 다른 장르, 연령대의 음악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곡을 만들고 녹음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어 좋았다. 음악인들의 창작 고충을 일깨워 준 유익한 방송이었다. <4월 23일 보고서>

○ 2TV 「조용필 50주년 기획 3부작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 가요계에 한 획을 그은 한국 최고의 대중가수인 '조용필 50주년 기획 특집' 1부가 방송되었다.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조용필의 수많은 명곡들을 재조명하고 숨겨진 일화를 들려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장르를 넘나드는 가요계 선후배들이 조용필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수준 높은 무대들을 선보여 보는 내내 즐거웠다. 앞으로 남은 2, 3부도 기대하며 시청하겠다. <4월 23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우리가 만난 기적」

- 두 송현철(김명민 분, 고창석 분)이 한 날 한시에 사고가 난 이후 영혼이 바뀐다는 내용이 신선해서 재미있게 보고 있다. 이날 송현철(김명민 분)은 결국 선혜진(김현주 분)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 후 조연화(라미란 분)를 택했다. 정신적인 영혼의 아내를 택하지만, 여전히 육체는 다른 사람이라는 설정이 애절함을 자아내는 것 같다.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하다. <5월 16일 보고서>

○ 2TV 「거기가 어딘데??」

- 극한의 탐험 여정을 100% 리얼로 담아내는 탐험 중계방송으로, 초보 탐험대원으로 나선 지진희, 차태현, 조세호, 배정남 이 네 명의 남자가 막막한 환경 속에서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탐험대가 사막횡단 2일차를 맞아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해서 전편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사막이라는 주제로 색다른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하겠다. <6월 25일 보고서>

○ 2TV 「다큐멘터리 3일」

- 지하철도 시내버스도 끊어진 시간에 밤을 달리는 서울시 심야버스의 72시간을 보여주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승객들은 밤에 일을 하거나, 퇴근이 늦어진 사람들이었다. 방송을 통해 많은 서민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서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고, 감동적인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7월 24일 보고서>

○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 본인은 KBS에서 평일 오전 9시에 방영하는 'TV 소설'을 꾸준히 시청해온 시청자이다. 그런데 '파도야 파도야'는 역대 'TV 소설' 중에서도 더욱 진실 되고 흥미진진한 내용인 것 같다. 1960~70년대 당시의 배경으로 가수 지망생 오복실(조아영 분)이 당차고 밝은 심성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를 따듯하게 그려내어 보기 좋다. 폭염 속에도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8월 3일 보고서>

○ 2TV 「불빨간 당신」

- 부모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자식과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특히 배우 최대철과 그의 어머니 오순자 씨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오순자 씨는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부로도 일하며 단칸방에서 5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한다.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유익하고 재미있는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일 저녁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무엇보다 전국 곳곳에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 주어 도움이 된다. 이날은 천 원짜리 저렴한 김밥을 파는 식당을 소개해 주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는 게 없어도 열심히 장사하는 식당 주인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이날처럼 기분 좋은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 주면 좋겠다. <10월 22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하나뿐인 내편」

-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내용이다. 특히 주인공 김도란 역을 맡은 배우 유이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김도란이 울 때마다 본인도 눈물이 났다.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와 배우들의 호연 덕분에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재미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겠다. <11월 12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상식이 없을 것 같은, 일명 '상식 문제아들'이 옥탑방에 갇힌 뒤 열 문제를 풀어야 탈출할 수 있는 설정이 너무 재미있다. '뇌섹'이 각광받고 있는 사회에서 이러한 소재가 참신하게 다가온다. 본인은 본 방송을 시청한 뒤 재방송으로 한 번 더 시청할 정도로 해당 프로그램에 푹 빠져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1월 30일 보고서>

○ **2TV 「2018 KBS 연예대상」**

- 연말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KBS 연예대상'을 시청했다. 프로그램 별로 수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한 것 같아서 몹시 만족스러웠다. 특히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생애 첫 대상 수상으로 시청자들을 뭉클하게 했다. 의미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2월 26일 보고서>

○ **1R 「음악이 흐르는 밤」**

- 심야에 박태원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으로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내 마음의 서재' 코너를 통해 매주 한 권의 책을 낭독해 주는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기대하며 꾸준히 청취하겠다. <1월 19일 보고서>

○ **1R 「행복한 시니어」**

- 시니어와 관련된 정책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특히 성우의 음성으로 편지글을 소개하는 코너인 '가슴에 새기는 편지'를 좋아한다. 이 날은 김초혜 시인과 손주 조재면 군이 주고받은 애뜻한 편지 사연을 들려주어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따뜻한 이야기를 방송해 주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1R 「뉴스 중계탑」**

- 지난해 국가부채가 1년 전보다 123조 원 증가해 처음으로 1,550조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공무원과 군인 연금 등 연금 총당 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영향이 컸던 문제점을 보도해 주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뉴스를 보도해 주기 바란다. <3월 29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 김유경 노무사와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5월 8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유익한 방송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4월 13일 보고서>

○ **1R 「글로벌 한국사 그날 세계는」**

- 한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드는 역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반만년 세월을 이어온 한국과 베트남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어 매우 좋았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1R 「라디오 주치의 이충현입니다」**

- 국내외 의학계 소식을 비롯해 건강에 관한 궁금한 점을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제공해주어 늘 애청하고 있는 청취자이다. 이날은 알코올의존증의 증상 및 알코올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을 비롯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자리를 갖는 지인들이 많은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출연해 알고 싶은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주어서 공감 많이 되었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부탁한다. <6월 18일 보고서>

○ **1R 「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

- 주말 아침마다 청취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양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해 들려주어서 애청하고 있다.

특히 2부에 편성되어 있는 '생활 속의 인문학' 코너를 잘 듣고 있다. 일상생활을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구성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많이 소개해 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1R 「바른말고운말」

- 청취자들의 바른 말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언어 순화에 이바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방송 덕분에 바른 말 사용은 물론이고, 속담이나 관용구 등도 다양하게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8월 31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꼭 필요한 경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주어 오전 출근길에 즐겨 청취한다. 이날은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이후, 처음 찾아온 추석 전날 일요일 의무휴업에 대해 다뤘는데 내용이 알차고 좋았다. 무엇보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어렵게 키워 시장에 내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좋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어주기 바란다. <9월 20일 보고서>

○ 1R 「58분 날씨」

- 매일 오전 출근길에 '58분 날씨'를 참고한다. 생활과 기상정보를 결합한 날씨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늘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 이날도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청취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다. 청취자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1월 7일 보고서>

○ 1R 「싱싱 농수산」

- 농수산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오늘은 전국각지의 좋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서로 교류도 할 수 있는 상생상회를 소개해주었다. 본인은 방송에 소개된 곳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늘 만족스럽다. 항상 즐거운 정보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어서 감사하다. <12월 20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최수종입니다」

- 매일 오전 시간대에 적절한 음악을 선곡해 주어 기분 좋게 청취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청취자들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진행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듣는 재미를 더해 준다. 앞으로도 활력을 주는 좋은 방송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4월 9일 보고서>

○ 2R 「KBS 라디오 걸작선」

-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이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교과서 속의 다문화'라는 주제로, 다문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교실 속 풍경을 다루었다.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 데는 교과서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 작은 것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 또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의미 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 <5월 29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라디오 7080」

- 중장년층 청취자들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적절하게 선곡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음악과 함께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편안한 오후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인 것 같다. 특히 진행자 임백천의 차분한 음성과 재치 있는 입담이 듣는 재미를 더해준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8월 2일 보고서>

○ **3R 「우리는 한가족」**

-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생활정보를 전달해 주어 즐겨 청취한다. 요일별 코너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행사 소식과 이슈, 요리, 여행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주어 유익했다. 앞으로도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 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3R 「라디오 여행기」**

- 마음의 양식이 되는 여행기를 선정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이 매우 좋아하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성우의 음성이 차분하고 발음이 정확하여 방송 내용에 편안히 집중할 수 있어 좋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기를 낭독해 주기 바란다. <7월 23일 보고서>

○ **3R 「연속낭독」**

- 방송을 통해 매일 이른 아침마다 좋은 책을 읽어주어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는 청취자이다. 본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읽어주는 책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종종 구입할 때가 있다. 특히 인물 중심의 작품들을 낭독해 주어 교훈적이다.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8월 24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예술가곡, 민요, 오페라,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들려주는 성악곡 전문 프로그램이라 즐겨 청취한다. 특히 매일 진행되는 '자연으로부터' 코너를 좋아한다. 진행자인 정세진 아나운서의 차분한 음성으로 자연 에세이를 들려주어 듣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아침 출근길에 클래식 음악을 즐겨듣는 애청자이다. 진행자의 매끄럽고 차분한 진행과 함께 매일매일 좋은 음악을 선곡해 주어 듣기 좋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을 선곡하여 청취자들의 듣는 즐거움을 만족시켜 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 첼리스트 송영훈의 차분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즐겨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듣기 좋은 음악을 선곡해 주어 집중하기에 좋은 것 같다. 적절한 선곡과 함께 연주자와 곡에 대해 간략한 해설을 덧붙여 주어 듣는 재미를 더해 준다. 앞으로도 기대하며 청취하겠다. <3월 21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퓨전 음악을 소개하고 선인들의 풍류담을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이 날은 '풍류마을 사람들' 코너에서 '남도민요 흥타령'이 선곡되었는데 애절한 가사와 함께 맑고 고운 아쟁과 대금의 선율이 듣기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선곡하여 들려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1FM 「JAZZ 수첩」**

- 주말 밤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하며 재즈의 향연을 즐기고 있다. 재즈는 어려운 음악이라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하고 정감 어린 재즈를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 너무 좋

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듣기에 편안하고 귀에 익숙한 재즈를 많이 소개해 주면 좋겠다. <9월 20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우리 음악계의 생생한 현장과 음악가들의 열정을 찾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늘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간결하고 알찬 구성, 훌륭한 선곡, 그리고 신윤주 아나운서의 진행까지 좋아서 본인이 무척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겠다. <10월 11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배경지식 없이는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는 클래식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덕분에 어렵고 딱딱한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느끼기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감상하는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제목을 알아두었다가 다시 들곤 한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0월 18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특히 요일 별로 다른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늘 색다른 느낌이다. 앞으로도 책,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청취자들이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한민족R 「라디오 문학관」**

-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나라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내용을 낭독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이 날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으로 김희선 작가의 '골든 에이지'이라는 작품을 소개하였다.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로 작품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쉽게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해주기 바란다. <4월 18일 보고서>

○ **한민족R 「세월따라 노래따라」**

- 중장년층이 회상에 젖을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흘러간 이야기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점이 무척 재미있다. 늦은 새벽 시간대에 방송 돼 청취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들을 정도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추억의 노래와 정겨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다. <10월 5일 보고서>

| 9. 표현(소재) |

○ **1TV 「동물의 왕국」**

- 생후 18개월 된 벌꿀오소리 '그릿'이 어미로부터 독립한 뒤 나미비아 중부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시청하고 있는데 오소리가 먹잇감을 뜯어먹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 시청하기 불편했다. 청소년이나 아이들도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는 혐오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은 화면 효과 처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1TV 「특집다큐 제국의 심장에 불을 밝혀라」

- 1887년 아시아 최초로 한성에 전기가 점등된 배경과 구한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고종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에서 일제가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민비'라는 호칭을 사용해 보기 불편했다.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내용인 만큼 호칭 사용에 신중하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일요토론」

-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 주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방송되었다.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없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토론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평창올림픽 라이브」

-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루지 남자 싱글 1차 레이스 경기를 시청하였다. 그런데 루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 종목인데 경기 기록 측정 속도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쳐 잘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1TV 「공사창립특집 인간과 습지 2부작」

- 1998년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습지로 등록된 국내 최대의 자연습지인 우포늪에 대해 방송되었다. 각종 동물 생태계가 피어나는 우포늪의 장관을 볼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방송을 중간부터 시청하여 우포늪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추후에는 자막으로 계속 위치를 표기해 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국군 기무사령부 내부 문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보기관들의 정치 개입 실태를 파헤친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자료화면에서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과 합성된 국가정보원 마크가 나와 보기 불편했다. '일베(일간 베스트)'는 극우 성향의 정치색, 소수자에 대한 비하, 막장 문화로 논란이 많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이다.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1TV 「독립영화관」

- 성미산 마을공동체에서 자란 두 청소년의 좌충우돌 사춘기를 다룬 영화이다. 그런데 15세 이상 시청 가능 프로그램인데 어른이 열일곱 살, 열여덟 살 두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이 나와 시청하기 불편했다.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들이 음주를 가볍게 여길까 봐 우려가 된다. 앞으로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영화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라인」

- 우리나라 지도를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각 지역의 날씨와 기온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지역별 내일 날씨 예보 시 그래픽 화면이 너무 빨리 지나가 날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처럼 나이가 많은 시청자들을 배려해 그래픽 화면 표기 시간을 늘려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

-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약재로 쓰였지만 이제 요리에도 사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곤충을 먹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혐오스러웠다. 식용 곤충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장면은 삼가해 주기 바란다. <5월 2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소개해주어 방송을 통해 간접경험을 즐기는 시청자이다. 이날은 식민지배와 내전, 혁명 등 험난했던 역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나라인 쿠바를 여행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전인 18일, 쿠바에서 민간 항공기가 추락해 100명 이상 숨지는 참혹한 사고가 있었다. 물론 녹화 방송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런 시기에 쿠바를 여행하는 프로그램 편성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현충일 특집다큐 내 사랑」

-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집다큐 잘 보았다. 본인은 현충일은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은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기보단,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위주의 방송이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니만큼, 전쟁으로 희생된 전사자 위주의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건강 및 의학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늙지 않는 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뇌의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감퇴 그리고 치매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진행자가 뇌도 늙으면서 쪼그라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맥 상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나이 든 시청자 입장에서선 서글펐다. 추후에는 노년층 시청자들을 배려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 이날 방송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놨다. 그런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휴전 국가에서 징집에 의한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은 길게, 고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악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뤄주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1TV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다채로운 생태계와 흔히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이날은 '하와이의 심장'으로 불리는 오아후 섬을 소개했다.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경관 사이사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자주 등장했다. 본인은 자녀들과 함께 시청하고 있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추후에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아름다운 비경이 돋보이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7월 12일 보고서>

○ 1TV 「엄마 아빠는 외계인」

- 넘치는 개성으로 대한민국 연예계를 쥐락펴락했던 스타들의 일상을 자식의 입장에서 재진단해 보는 신 개념 가족 관찰 예능이라고 하여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를 관찰하는 장면에서 첫 장면부터 상의를 탈의한 채 샤워를 하는가 하면, 독섬유원지에서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태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지나친 노출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8월 2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100명의 패기 넘치는 청소년들이 50문제에 도전하는 퀴즈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재치를 엿볼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한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적은 메시지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됐다. 모자이크 된 문구는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된 '동일 범죄, 동일 처벌', '낙태죄 폐지' 등이었다고 기사를 통해 알았다. 개인의 신념을 표현한 문구를 굳이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든다. <8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판빙빙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해서 온갖 억측과 괴담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베이징 특파원이 판빙빙 소속사의 베이징 사무소를 찾아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시도하는 내용의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해외 여배우의 잠적설이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더 중요한 국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이날 '뉴스특보'를 통해 문 대통령 내외와 김 위원장 내외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환담을 나누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 중 욕설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양측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욕설을 했고, 그런 욕설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KBS는 남북정상회담의 주관방송사로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의견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 뿌듯하다. 그런데 시청자 의견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기되는데,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지나가버려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자막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 <10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5」

- 경북 안동의 한 시골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 뉴스를 보던 중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시신이 화면에 노출되어 깜짝 놀랐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10월 12일 보고서>

○ 1TV 「전국이장회의」

- 이날의 첫 번째 안건은 '이장이 알려주는 귀농, 귀촌 실전 꿀팁'이었다. 본인도 귀농을 했는데 마을 주

민의 텃세가 심해 융화되기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방송에서 다룬 귀농의 어려움은 너무 단편적이었고, 이장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었다. 이장의 시선으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방송의 콘셉트이긴 하지만, 귀농의 고충을 조금 더 귀촌인의 입장에서 다뤄주었다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1월 9일 보고서>

○ 1TV 「ABU 공동제작 CARE 8」

- 환경과 농사에 관심이 많은 젊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도시 생활에서 허무를 느낀 후 시골에 터를 잡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면만 보여준 방송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귀농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귀농귀촌의 실상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을 넣어주었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1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

-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에 기자가 내 차 등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전해주었다. 그런데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 얼마나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기자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연을 맡는 모습이 몹시 안쓰러웠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좋지만,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12월 3일 보고서>

○ 1TV 「시민의회」

- 이날 '시민의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시민의원단과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당시에 처한 상황에 따라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은 그보다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데, 굳이 방송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다룰 필요가 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12월 17일 보고서>

○ 2TV 「여유만만」

- 전자레인지로 '초 간단 수제 요구르트'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요구르트가 담긴 유리병을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밀봉된 상태로 가열하면 폭발이나 파열의 위험이 있어 보기 불안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약 60 마리의 거머리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동생의 사연이 방송되었다. 거머리를 집안 곳곳에 보관하고 가족들의 피를 빨리게 하는 행동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출연자가 거머리를 맨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혐오스러워 보기 불편했다. 거머리에 물렸을 경우 세균 및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장면을 본 청소년들이 따라하진 않을까 우려된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딱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코너에서 해물 칼국수 맛집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육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 양파, 건새우 등 재료를 흰 망에 넣고 뜨거운 물에 끓이는 장면이 나왔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한 망은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앞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용기사용이나 조리방법은 방송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9일 보고서>

○ 2TV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 등장인물이 '문디'라는 대사를 계속 표현하여 불쾌했다. '문디'란 단어는 경상도 사투리이기도 하지만 원래 의미는 한센병 걸린 손아래 성인 및 청소년 남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센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마술사로 변신한 조직폭력배들이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마술을 선보이는 코너이다. 그런데 세 명의 출연자가 특유의 설렁거리는 제스처로 행동하는 모습이 공감하기 어렵고 조직폭력배를 미화하는 것처럼 느껴져 시청하기 불편하다.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전한 웃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면 좋겠다. <3월 6일 보고서>

- '봉숭아학당' 코너에서 '요리사 섹시(Sexy)백'이란 캐릭터로 남자 개그맨이 출연하였다. 그런데 속살이 비추는 망사 옷을 착용하고 자신의 신체 부위마다 고기를 몸에 붙이는 행동이 선정적으로 느껴져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 민망하고 불편했다. 온 가족이 모두 시청할 수 있게 건전한 웃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 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추리의 여왕2」

- 초등학생이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온 연쇄방화범의 영상을 보고 범행을 모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아세톤을 담은 소주병에 불을 붙인 뒤 떨어트려 길에 서있던 여자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다. 방송을 본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따라하진 않을까 우려되어 보기 불편했다. 되도록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장면은 지양해 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2TV 「속보이는TV 인사이드」

- 재혼 3년 차 하루 종일 집안일과 육아에 시달리는 엄마와 폭력적인 아빠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이들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치며 물건을 던지려는 장면이 나와 보기 불편했다. 이 프로그램은 15세 등급 방송으로 폭력적인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올해로 결혼 26년 차라는 임백천, 김연주 부부가 도전자로 출연했다. 잉꼬부부답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김연주가 좋아하는 임백천의 신체 부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패자부활을 위한 깜짝 퀴즈인 것은 알겠지만, TV를 시청하며 함께 문제를 푸는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심야식당' 코너와 '연예가 핫클릭' 코너, 두 번에 걸쳐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보았다. 이후 제작진이 공식사이트를 통해 사과를 한 것은 알지만, 공영방송에서 일베에서 만들어 낸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이 시청자로서는 너무 실망스럽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비판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5월 23일 보고서>

- 최근 '연예가 중계'에서 특별기획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세기의 미남 미녀 2018'이라는 코너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은 '국내 여자 배우 편'으로 100위부터 61위까지의 미녀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미를 바라

보는 기준이란 주관적인 것인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순위까지 정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요즘 외모도 능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든 어린아이들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이런 소재는 가급적 피해 주기 바란다. <7월 16일 보고서>

○ 2TV 「하룻밤만 재워줘」

- 매혹의 나라 베트남에서 이상민과 조재윤이 하룻밤을 재워줄 인연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다. 특히 이상민이 길거리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겠다고 했을 때 조금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상민이 고집해오던 라운드 형태의 헤어라인이 아니었고, 보수를 요청하자 헤어라인이 넓혀지기만 했다. 그 상황에서 '두피 고속도로'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본인에게는 속상한 일이었을 텐데, 단지 웃음의 소재로만 삼는 듯 보여서 좋지 않았다. <5월 25일 보고서>

○ 2TV 「거기가 어딘데??」

- 극한의 탐험 여정을 100% 리얼로 담아내는 탐험 중계방송이라는 선전에 끌려 시청하게 되었다. 초보 탐험대원으로 나선 지진희, 차태현, 조세호, 배정남 이 네 명의 남자가 막막한 환경 속에서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진다. 그런데 프로그램명을 표기한 빨간색과 하얀색 조합의 자막이 잘 보이지 않는다. 프로그램명 표기 시 조금 더 편안한 색상을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5일 보고서>

○ 2TV 특선영화「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 현충일 기념 특선영화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가 방영됐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열 개의 알약을 얻게 된 남자가 삼십 년 전의 자신과 만나 평생 후회하고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었다. 영화 자체는 재미있었지만, 이 영화가 현충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했다.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영화를 편성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6월 8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VJ특공대'에서 지난 6월 강진에서 실종되었던 여고생이 본격적인 수사 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사건을 치밀하게 보도해주었다. 그런데 해당 보도 이후, 바로 다음 코너에서 청정지역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산 먹거리에 대해 다루었다. 전 국민이 무사생환을 염원했던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에 이어 먹거리를 소개하는 모습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았으니 추후에는 코너 배치 시 주의해 주기 바란다. <7월 6일 보고서>

○ 2TV 「배틀 트립」

- 연예인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2인 1조로 떠나는 여행이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특히 실속 있는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오스트리아의 소도시로 떠난 걸 그룹 레드벨벳의 웬디와 슬기가 도나우 강변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던 중 생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방영됐다. 한창 호기심 많을 고등학생들이 방송을 보며 음주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품을까 우려스럽다. 최근 청소년 알코올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가급적이면 음주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8월 14일 보고서>

- 평소 여행을 좋아해서 실속 있는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이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김윤아-김형규 부부의 일본 홋카이도 여행기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벽 일본 홋카이도 남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37명이 사망하고 현재까지 3명이 실종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핫카이드 지역을 홍보하는 듯한 해당 방송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 위주로 소개해 주기 바란다. <9월 10일 보고서>

- 연예인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2인 1조로 떠나는 여행인데 무척 재미있다. 이날은 그룹 신화의 김동완과 전진이 제주도 서귀포시를 여행했다. 그런데 흑돼지구이를 먹으며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방영됐다. 한창 호기심 많을 고등학생들이 방송을 보며 음주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품을까 우려스럽다. 최근 청소년 알코올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음주 장면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2TV 「댄싱하이」

- 이날 기대했던 '댄싱하이' 첫 방송을 보았다. 춤이 좋아서 구슬땀을 흘리는 10대들의 열정과 엄청난 댄스 실력을 볼 수 있어 방송 내내 눈을 땔 수 없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생인 13세부터 고등학교생인 19세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짙게 화장한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방송을 시청하는 수많은 십대들이 그들을 동경하고 모방할까봐 우려스럽다. 적어도 초등학교생만큼은 순수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면 보기 좋을 것 같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이날 저녁 복불복 게임은 상대방 얼굴에 붙은 포스트잇을 오직 '입바람'만으로 떼야 하는 미션이었다. 그런데 김준호 씨가 김종민 씨의 얼굴에 바람을 불던 중 트림 등 생리 현상을 그대로 노출했고, 방송에서도 아무런 여과 없이 '꺼억' 등의 자막까지 사용하며 내보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방송을 시청하던 중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앞으로 멤버들의 생리 현상은 편집해 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전주 한정식을 걸고 하는 리얼 라이브 방송을 재미있게 보았다. 그런데 시키면 뭐든지 다 하는 'O.K 용진팀' 멤버들이 '달고나 바꿔먹기'를 시도하는 장면에서 눈살이 찌푸려졌다. 왜냐하면 김종민과 이용진이 각자 먹던 달고나를 바꿔먹었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해당 방송을 시청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앞으로 너무 비위생적인 장면은 방송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1월 27일 보고서>

- 이날 방송에서 마흔네 살 김준호 씨의 꿈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그 꿈이 다름 아닌 '정자 검사'였다. 이어 김준호 씨가 비뇨기과를 찾아 정자 검사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온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며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중 굉장히 민망하고 당황스러웠다. 재미도 좋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12월 11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

- 이날 '친절한 키워드'의 두 번째 키워드는 '태극기는 '부대?'였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가 "왜 촛불시위는 혁명이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분들은 부대인가. 이분들도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다."라고 발언한 것에서 기인한 키워드였다. 본인 또한 궁금해서 방송에 집중했으나, 왜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 '부대'라고 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시청자들이 궁금하도록 의문을 제기했으니, 마땅한 답변도 함께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24일 보고서>

○ 2TV 「파리로 가는 길」

- 남들과 똑같은 일정을 보내는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미식 여행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정형돈, 이채영, 김풍이 오픈카를 운전하여 남프랑스의 니스에서 낭만의 도

시 파리로 가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시청자가 보기엔 이미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연예인들의 해외 여행기여서 식상했다.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먹고 즐기는 콘셉트가 아닌, 건설적인 요소를 첨가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19일 보고서>

○ 2TV 「잠시만 빌리지」

- 스타들이 집을 벗어나서 아이와 함께 한 도시에서 느긋하게 살아보는 로컬 거주 여행을 보여주었다. 이날은 정인&조정치 가족의 류블라나 거주 여행, 박지윤 가족의 헬싱키 거주 여행, 김형규 부자의 발리 거주 여행을 보여줬는데 시청자 입장에서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공감하고 재미를 느껴야할지 알 수 없었다. 서민들은 살기 어려운데 방송에서 스타들의 느긋하고 화려한 여행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건 자제해 주기 바란다. <12월 24일 보고서>

○ 1R 「58분 날씨」

- 58분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출근 전인 오전 6시대의 '58분 날씨'를 주로 애청하고 있다. 가장 주의 깊게 청취하는 부분은 단연 미세먼지 농도이다. 그런데 이날은 전국 비 소식과 예상 강수량만 알려주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빠짐없이 보도해 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R 「강유원의 책과 세계」

- 시의성 있는 주제로 동서양 고전 독서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비록 방송 시간은 짧지만, 꾸준히 들으니 인문학적 소양이 넓혀지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다. 다만 본인에게는 책이나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추후에는 다양한 수준의 청취자들을 위해 쉬운 책도 소개해 주면 좋겠다. <12월 20일 보고서>

○ 2R 「행복한 두시, 조성모입니다」

- 진행자 조성모의 감미로운 음성과 차분한 진행 덕분에 방송을 즐겁게 청취하고 있다. 특히 늘 좋은 선곡을 해주어서 즐거움이 배가 되는 기분이다. 그런데 너무 음악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 다양한 사연이 듣고 싶으니, 사연 소개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 <7월 26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매일 저녁 해당 방송을 통해 감미로운 팝송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취자이다. 진행자 이상호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음성과 차분한 진행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다. 그런데 본인처럼 고령의 청취자들은 원어로 된 제목 그대로 팝을 소개하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청취자들을 위해 제목 소개 시 우리말로 번역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11월 13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음악은 평범한 일상에 설렘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예술이다. 그래서 본인은 '가정음악'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소개 받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는 청취자이다. 그런데 '마음을 읽다' 등의 코너에서 외국계 화가의 생애를 돌아보는 등, 자꾸 음악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까지 방송의 폭이 넓혀져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날도 화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들려주었다. 앞으로는 클래식 전문 프로그램답게 음악에 집중하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8월 30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사람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성악곡 전문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해당 방송의 오랜 청취자이다. 예술가곡, 민요, 오페라,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을 감상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르가 오페라에 한정된 듯하다. 청취자들이 예술적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곡해 주면 좋겠다. <10월 17일 보고서>

○ **2FM 「이수지의 가요광장」**

- 다양한 장르의 가요부터 최신곡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청취한다. 특히 DJ 이수지 특유의 발랄함과 친근한 매력이 듣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그런데 40,50대 중년층보다 20,30대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 위주로 선곡되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해 들려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2FM 「조승연의 굿모닝팝스」**

- 팝송과 영어회화를 접목시켜 영어공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어 '레이나의 굿모닝팝스'에서부터 매일 아침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진행자가 조승연으로 변경된 이후 갑자기 어려워져서 따라가기 어렵다. 아무래도 이전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해오던 공부 방식이 있으니, 이전과 비슷한 방식 및 속도로 방송을 진행해 주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6월 7일 보고서>

| 10. 언어 |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각종 암까지 유발하는 식탐 속의 비밀과 식탐이 주는 경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자막과 내레이션에서 다리가 '얇다'라고 했다. 팔이나 다리 등은 '굵다'와 '가늘다'로 표현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혼동해 사용하는 만큼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

- 자막 하단 뉴스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부 해저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런데 자막에 표기된 '쓰나미'는 일본어로 '지진 해일'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KBS 스페셜」**

- 에콰도르의 최고봉 침보라소 산에서 얼음 캐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아버지와 손주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새끼줄 꼬는 법을 알려주는 장면에서 새끼줄이 '얇게'라고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 굵기나 너비에 관련해서는 '가늘다'라는 표현이 맞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

- 이날 '야생여정'에서는 바다 선착장과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훔쳐 먹는 수달, 도시하천에서 서식하는 수달 등을 통해 사람 인근에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를 조명했다. 지구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했다, 한다, 나뉜다' 등 반말로 이루어진 내레이션이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높임말로 소개해 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모습을 담아내어 평소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무척 즐겁다. 그런데 내레이션을 반말로 해서 듣기 불편할 때가 종종 있다. 내레이션이 존댓말로 진행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7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국내 대형 물놀이장의 수질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보았다. 호흡기 장애나 피부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 잔류 염소' 수치가 해외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워터파크'라는 표현 대신 '대형 물놀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각종 외래어 범람에 우리말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주어 감사하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

- 강원도 정선의 가리왕산 자락에 살고 있는 엄순분 할머니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이었다. 그런데 내레이션이 반말로 진행되어 듣기 불편한 면이 있었다. 내레이션이 존댓말로 진행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11월 15일 보고서>

○ 2TV 「**해피 선데이-1박 2일**」

- 전국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 날 방송에서 'The love', 'ㅇㅈ', 'SS+글놈' 등 외래어와 신조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24일 보고서>

○ 2TV 「**거기가 어딘데??**」

- 본인은 미국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시청자이다. 멋진 영상과 기획의도가 흥미진진하고, 네 명의 남자가 막막한 환경 속에서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여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한글로 표현이 가능한 단어를 굳이 '잠깐 스톱', '찬스를 놓치다', '힘들 타이밍' 등 영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타지에 나와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한글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언어인지 알게 되었다. 공영방송에서라도 아름다운 한글 사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1R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생방송 "여기는 평창입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생방송을 라디오를 통해 청취하였다. 그런데 리포터가 '우리나라'가 아닌 '저희나라'라고 잘못 발언하였다. 나라는 겸양의 대상이 아니니 '우리나라'라고 해야 맞다. 앞으로는 사전에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오페라, 가곡,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들려주어서 즐겨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특히 본인은 방송 시작 전에 홈페이지에서 선곡표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선곡표가 원어로 되어 있어 읽기 불편하다. 차후에는 제목 옆에 한국어 번역을 달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5월 15일 보고

서>

| 11.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

○ 2TV 「러블리 호러블리」

- 운명을 공유하는 한 남녀가 톱스타와 드라마 작가로 만나면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그린 호러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데 연출을 맡은 PD가 현장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 추후에는 세월호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 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12. 방송품질 |

○ 1TV 「6시 내고향」

- 매일 저녁 '6시 내고향'을 시청하는 오랜 시청자이다.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 도시에 나와 살고 있는 본인에게는 참 따뜻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스튜디오의 인테리어가 늘 똑같아서 지루한 면이 있다. 계절마다 스튜디오의 콘셉트를 달리하여 계절감을 반영해 준다면, 시청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더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다. <11월 9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비평을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방송 초반, 그리고 패널들 소개할 때 등 배경음악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집중을 저해한다. 배경음악 사용 빈도를 줄이고, 크기도 줄여준다면 방송에 대한 집중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11월 1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여행, 건강, 살림살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와 궁금한 소식을 전달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VCR 화면이 나올 때 부연하는 설명을 듣고 싶는데 진행자들의 말과 방청객의 호응 소리가 겹쳐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앞으로는 방송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다양한 맛집 소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다루어 즐겨 시청한다. 더불어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친근감 있는 진행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그런데 VCR 화면이 나올 때 부연설명에 집중하고 싶는데, 방청객의 호응 소리가 너무 크고 인위적으로 들려 집중을 저해한다. 앞으로는 방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과음을 조금 줄여주기 바란다. <11월 22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진행하는 여자 아나운서의 의자가 탁자 위치보다 높게 되어 있어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다. 조심하지 않으면 속옷이 보일 것 같아 시청하면서 불안했다. 탁자 위치에 맞게 의자 높이를 맞추면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 바란다. <8월 22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진행자의 편안하고 재치 있는 입담이 좋아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 홍보 스팟이 나올 때 까마귀 울음소리를 흉내 내는 진행자 박명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 깜짝 놀랐다. 앞으로는 불편 없이 청취할 수 있도록 음향을 조절해 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3. 시청자 참여 |

○ 1TV 「아침마당」

- 즐겨 시청하는 프로그램인데 시청자 의견은 스마트폰에서 티벳(TVUT)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여 매우 아쉽다. 본인처럼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렵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월 24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기자들의 풍부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잘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제보도 중요한 몫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으로만 제보를 받는 것은, 본인처럼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전화나 우편 등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넓혀주면 좋을 것 같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엄경철의 심야토론」

- 심야토론이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시청했다. 이날 주제는 세기의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북미정상회담'으로, 과연 비핵화를 위해 진전한 것인지 이름뿐인 빈손 합의인지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비핵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이어서 아쉬웠다. 문자 메시지 사용에 서툰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 <6월 18일 보고서>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및 과제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방송을 보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핵심 쟁점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자를 보내는 것 외에는, 생방송 참여전화 등이 없어서 아쉬웠다. 모든 시청자가 문자메시지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생방송 참여전화를 비롯하여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9월 11일 보고서>
- 이날 토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과 무엇이 좋은 선거 제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 문자로 참여했으나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해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12월 10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7080년대의 명곡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당시의 인기곡을 통해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 본

인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꼭 한 번 방청하고 싶은데, 방청신청이 인터넷 상으로만 이뤄져서 본인 같은 장년층에게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방청신청을 하지 못하는 장년층을 위해 방청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매일 저녁 '6시 내고향'을 시청하는 오랜 시청자이다. 특히 본인에게는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라는 주제로 꾸며진 '세프의 선물' 코너가 인상적이었다. 본인 또한 부모님께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신청했지만 채택되기가 어려워 무척 아쉽다. 보다 많은 사람이 해당 코너를 통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10월 18일 보고서>

○ 1TV 「오늘밤 김제동」

-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어 매일 밤 시청하고 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느껴져 신선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소통의 방법이 SNS로 댓글을 다는 방식이라 본인처럼 고령의 시청자는 참여할 수가 없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1월 8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일반인 출연자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특히 진행자들이 출연자의 고민에 공감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런데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출연자의 고민에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싶을 것 같다. 문자나 댓글 등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다면, 고민 해결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차후 방송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8월 16일 보고서>

○ 2TV 「꿀잼 퀴즈방」

- TV를 보면서 누구나 퀴즈 상금에 도전할 수 있는 실시간 참여형 퀴즈쇼라고 해서 기대를 품고 시청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앱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 같은 고령의 시청자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중장년층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이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토론의 소재로 삼기 때문에 주의 깊게 청취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런데 방송을 청취하다 보면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데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누구에게나 묻고, 답을 들으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토론을 만들겠다는 홈페이지의 글처럼 보다 많은 청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26일 보고서>

| 14. 홈페이지 |

○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황혼의 싱글 여배우들이 한 집에 모여 동거를 시작하며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아낸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시 보거나 방송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 역사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나서 시청소감을 홈페이지에 남기고 싶어 접속했는데, 글을 남길 수 없어 매우 아쉬웠다. 시청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해 주기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지난 달 31일에 오랜 진행으로 정든 한상권 아나운서와 박주아 아나운서가 하차하고, 김승휘 아나운서와 정다운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그런데 방송정보를 얻기 위해 이날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메인 화면에 여전히 한상권·박주아 아나운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교체된 진행자의 사진으로 속히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 <9월 7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가요 음악과 함께 청취자의 다양한 사연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시간에 자주 청취한다. 방송을 통해 이각경 아나운서로 진행자가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편성표랑 홈페이지 다시듣기에서 '오유경의 해피타임 4시' 그대로 표기되어 혼란스러웠다. 진행자가 교체된 경우 신속하게 변경해 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VOD)서비스」

- 지난 5일부터 KBS 디지털서비스가 개편되며 몇몇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유료로 변경되었다. 3주가 지나면 무료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방송을 놓쳤을 경우 내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영방송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다시보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였다. 다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8월 8일 보고서>

| 15. 프로그램 구매 |

○ 1TV 「한국인의 밥상」

-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과 지역 별미를 소개해 주어 즐겨 시청한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간직하고 싶어 찾아보니 2011년대 후반에 발간된 도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 주기 바란다. <3월 29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평소 궁금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해 주어서 매일 저녁 방송을 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이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미스터Lee의 사진 한 컷 대한민국'이다. 이 코너는 사진 속의 숨은 비경 장소를 찾아 무작정 떠나는 로드 추적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좋은 곳들만 소개해 주어서 그대로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 주기 바란다. <8월 3일 보고서>

| 16. 보도 제언 |

○ 1TV 「KBS 뉴스 5」

- 나흘간 발생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 등에서 유입된 먼지보다 국내 영향이 컸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잠정 분석 결과를 보도하였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는데 해결책에 대해 정확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이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도해 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사건을 신고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겪는 2차 가해 피해 실태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런데 전문가가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갖춘 현행법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다. 현행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해병대원 5명의 영결식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보도가 다른 보도들에 밀려 거의 마지막 순서에 배치된 점이 마음 아팠다. 가뜩이나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영결식 보도를 메인으로 다뤄주었더라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 같다. <7월 25일 보고서>
-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보도를 보았다. 저출산, 고령화에다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선 변명으로 들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다. 더불어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주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반감만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더 이상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금이 되어야 한다. <8월 20일 보고서>
- 천연재료로만 만들었다는 일부 휴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올 초 불거진 라돈침대 사태 이후, 본인 또한 우리 집 침대는 괜찮은지 늘 불안했다. 보도를 보니 업체들이 내세우는 검사 결과가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이 점이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므로, 출고 전 모든 제품에 대한 라돈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도해 주면 좋을 것 같다. <9월 21일 보고서>
- '국군의 날'이었던 이날, 6.25 전쟁 중에 전사한 국군 유해 64 위가 68년 만에 송환됐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뉴스를 시청했다. 그런데 첫 주요뉴스가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관련 보도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1950년 북녘에서 숨을 거둔 뒤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68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호국영령들에 대한 보도를 메인으로 다뤄주었더라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 같다. <10월 4일 보고서>
-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 건물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는 보도를 보았다. 본인은 고시원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시청자인데, 방들이 붙어있고 복도가 좁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시원에서 난 불은 전국적으로 250건이 넘는다고 한다. 고시원 화재 사

고를 미리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1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가서 마음이 몹시 불안한 시청자이다. 본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정부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이 계속 빗나가면서 맥없이 떨어져 가는 예비율로 정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뉴스광장'에서 전력예비율에 대해 자세히 취재 후 보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8월 7일 보고서>
- 본인은 농업을 생업의 기반으로 하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매일 오전 '뉴스광장'의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시청한다. 이날은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는 예보와 미세먼지 농도, 전국 단풍 현황 등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향후 2~3일 후의 예보까지 해줘야 농사지을 때 도움이 된다. 앞으로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최소 2~3일 후의 날씨 전망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주면 농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10월 22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청자본부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48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청구·철회 등)	계
18	9	11	10	48

※ 2018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2일	조**	2015년부터 정보공개처리대장 및 이의신청처리대장 (개인정보제외)	공개	
2	1월 15일	황**	KBS 방송작가 급여 등	불문처리	민원으로 종결
3	1월 16일	김**	KBS보도 관련 의사 등 성명 공개 및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 직통유선번호, 성명공개	부분공개	이사진 명단 및 유선전화번호 공개 집도의 성명 및 주소, 유선 전화번호 공개
4	1월 31일	조**	한국방송공사-서경방송 간 소송 1 심 판결문	비공개	재전송 계약 등 영업비밀 포함
5	2월 1일	김**	자가차량이용보조금 및 복리후생 비 소득세 원천징수여부, 금액	부분공개	자차보조금, 복리후생 관련 공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개별산 출불가)
6	2월 2일	손**	2016-2017 전주총국 시청자위원 회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	공개	
7	2월 5일	박**	세월호 참사 당일 뉴스 속보 관 련	공개	
8	2월 6일	이**	한국방송공사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 등	공개	
9	2월 13일	조**	KBS 공채 지원자 지역별 직군별 경쟁률	비공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2월 21일	박**	세월호 참사 당일 뉴스9 보도 관 련	비공개	공개 어려움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2월 23일	김**	TV수신료 납부 내역 및 근거 법령	공개	
12	3월 19일	최**	TBS뉴스광장 출연 관련	비공개	공개 어려움
13	3월 19일	김**	자문변호사단 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개	
14	3월 29일	이**	00군수 관련 질의(세종시교육청 으로부터 이송)	불문처리	KBS와 관련 없는 청구로 민원 으로 불문처리
15	4월 17일	윤**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 원 해외출장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	공개	
16	4월 25일	강**	15-진정-0011500(15-진정 -0198500 병합) 사건기록 일체	비공개	플레이어K 개발계획에 관한사 항으로 비공개
17	5월 23일	김**	추적60분 "베트남의진실" 영상 물 및 대본 정보공개 요청	비공개	출연자 권리보호 등
18	6월 26일	이**	KBS내 사무실 FAX번호 및 부 서명칭 공개요구	공개	
19	7월 6일	김**	2000-2017년까지 tv수신료 징 수인원과 징수금액	공개	
20	7월 12일	이**	2016년 6월25일 수신료상담 2 건 녹취파일 청구	이송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7월 19일	김**	추적60분 "베트남의진실" 방송 내용 사실 확인 요청	부분공개	
22	7월 31일	김**	추적60분 "베트남의진실" 방송 내용 사실 확인 요청	비공개	출연자 권리보호 등
23	7월 30일	중앙행정 심판위원 회	2015-2016년 국악한마당 전주 총국제작관련 행정심판 청구 답 변자료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24	8월 6일	김**	방송국의 마인드컨트롤 및 두외 통신 프로세서 존재확인여부	공개	
25	8월 22일	김**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 지 급규정" 내용 정보공개 요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26	9월 4일	박**	뮤직뱅크 순위 점수산정을 위한 조사내역 등	공개	
27	9월 6일	박**	청구본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처 분서 등 해당 감사 관련 제반자 료일체	부분공개	감사보고서 비공개, 정보공 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5 호, 6호에 관한사항
28	9월 13일	송**	KBS의 기획, 인사와 관련된 자 료(경영목표, 최근 3년간 채용통 계, 중장기인력운영계획)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KBS중장기 인력계획,채용지원인원,경쟁 률등은비공개
29	9월 17일	정**	세월호 특조위 구성된 이후, KBS에 특조위가 청문회를 요구 한 공문 및 답변서	정보부존재	민원인과 통화, 청문회는 KBS가 답변할 수 없음을 설 명하고 민원인은 요청취소
30	9월 17일	정**	세월호 특조위 구성된 이후, 세 월호 특조위가 KBS에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제출목록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9월 28일	이**	곡성군청 직원 법정증언관련	불문처리	KBS와 관련 없는 청구로 민원으로 불문처리
32	10월 8일	박**	2018년 8월 뮤직뱅크 순위 점수산정을 위한 조사내역 등	공개	
33	10월 8일	박**	2018년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뮤직뱅크 순위 점수산정을 위한 조사내역 등	공개	
34	10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	보충서면 부분 전달		
35	10월 15일	왕**	19대 대선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비공개	방송 3사 및 한국방송협회의 합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없음을 회신
36	10월 11일	언론인권센터	2017년 이사회 예산집행내역 및 888차, 909차 이사회 의사록과 속기록 정보공개청구	부분 공개	
37	10월 24일	단**	최근 5년간 KBS수신료 환불 현황	공개	답변서 이메일 발송
38	10월 29일	방송위(정유라)	세월호, 천안함 모금 신고 현황	공개	KBS는 세월호 성금모금은 하지 않았으며, 천안함 성금모금은 모금액을 사회 복지공동기금에 전달하였으며 성금집행 등은 모금기관에서 관리함을 회신
39	10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청구	각하	
40	10월 29일	하**	송.중계소 및 중요 방송장비내역 정보공개 요청	부분공개	민원인에 이메일 발송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11월 5일	홍**	한국전쟁 역사자료 발굴협조요청 처리 결과	정보부존재	민원인에 이메일 발송
42	11월 8일	조**	2015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공개현황" 공개 요구	공개	민원인에 이메일 발송
43	11월 14일	문**	열린음악회, 6시내고향 지자체 협찬금 내역 공개	비공개	민원인에 이메일 발송
44	11월 30일	이**	곡성군청 직원 법정증언관련	불문처리	KBS와 관련없는 청구로 민원으로 불문처리
45	12월 4일	서**	전주KBS 보도관련 정보 공개요청	부분 공개	본인관련 보도 사실 확인을 자세히 안내해 등기 송부
46	12월 12일	서**	전주KBS 보도관련 정보 공개요청	부분 공개	교도소 공식입장 등은 교도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기 송부
47	12월 13일	김**	KBS정치부 기자실 음료상품권 사용 등	청구 취하	음료상품권 사용 등이 없음을 이메일로 발송
48	12월 13일	강**	김제동 발탁 경위 및 출연료 근거, 지급 규정 등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 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²⁾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 2010년 6월 11일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은 시청자본부장이다.

2018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79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79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0	0	3	3
2		1	0	6	7
3		0	0	6	6
4		0	0	6	6
5		1	0	4	5
6		1	0	1	2
7		3	1	4	8
8		2	0	6	8
9		5	0	5	10
10		5	0	1	6
11		4	1	10	15
12		3	0	0	3
계		25	2	52	79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41건)			비제작부문(38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6	13	22	3	26	9	79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5	6.3%
보도 취재요청	1	1.3%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1	1.3%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0	0.0%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7	8.9%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5	6.3%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24	30.4%
난시청, 난청	13	16.5%
경영(직원, 시설)	20	25.3%
수신료	3	3.8%
계	79	1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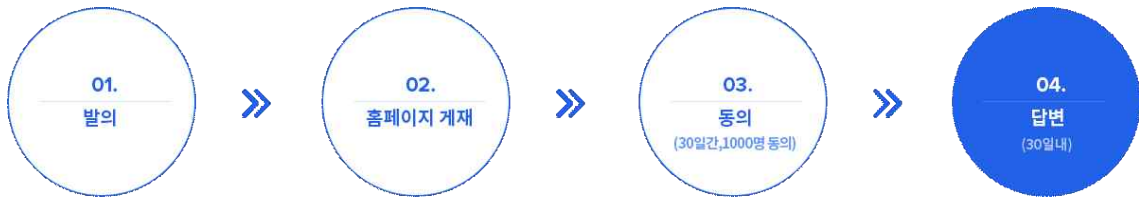
시청자청원

■ 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절차

청원 발의를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 추천은 주요 SNS (Facebook, Twitter, Naver)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카카오의 경우 중복 아이디 차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안에 시청자 프로그램, 동영상,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단, 청원 동의는 SNS회원도 가능합니다.
7.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8.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9.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및 처리현황]

월	구분	접수	성사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94	-	
10		52	5	
11		53	4	
12		50	6	
계		249	15	

※ 청원: 2018.09.04. 오픈

8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국이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³⁾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⁴⁾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국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⁵⁾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광장] 보도 제언</p> <p>-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가 무려 40 명이 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런데 기자가 '간호사 자격증 취득'이란 발언을 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전문 교육을 받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아닌 '면허증'으로 표현해야 맞다. 추후 방송에서는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사회 1 부</p> <p>- 방송 다음날 3월 4일에 '자격증' 멘트 내용 삭제 후,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 9] 보도 제언</p> <p>- 지난 달,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5년이던 보호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본인이 알기로는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곧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고, 그럼 정부가 새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보도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다. 현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시행 일자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경제부</p> <p>-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특집다큐 제국의 심장에 불을 밝히라]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7년 아시아 최초로 한성에 전기가 점등된 배경과 구한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고종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방송에서 일제가 '명성황후'를 낮춰 부르는 '민비'라는 호칭을 사용해보기 불편했다.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내용인 만큼 호칭 사용에 신중하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프로덕션 3 시사데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비'를 일제가 명성황후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른 호칭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속설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라고 칭하게 된 것은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황제가 되고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 다. 방송에서는 왕비 민씨가 살해당하기 전인 1887년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생전에 불렀던 '민비'라는 호칭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p>□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전문가가 농지연금을 설명할 때 "65세 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년 삼백육십사만 원, 매월 약 삼십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라고 했는데 자료화면에는 천원 단위로 '364'라고 표기되어 어떤 내용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추후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1TV 제작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에 적혀져 있는 '346'은 단위 천 원으로 346,000/(월)을 의미합니다. 방송 중 전문가의 실수로 346만 원으로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중계방송 제 63 회 현충일 추념식]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을 경건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그런데 '태극무공 훈장'이 '태국무공 훈장'으로 '깍아 세운 절벽'이 '깍아 세운 절벽'으로 잘못 표기된 자막을 보았다. 앞으로는 사소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프로덕션 2 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확인을 못해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p>□ 1TV [현충일 특집다큐 내 사랑]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집다큐 잘 보았다. 본인은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날 방송은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기보단,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위주의 방송이었다. 6 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니만큼, 전쟁으로 희생된 전사자 위주의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1TV 제작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충일을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날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리는 날로 범위를 넓혀보자는 의도를 지니고 제작하였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2TV [여유만만] 방송 제언</p> <p>- 전자레인지로 '초 간단 수제 요구르트'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요구르트가 담긴 유리병을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밀봉된 상태로 가열하면 폭발이나 파열의 위험이 있어 보기 불안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제언</p> <p>- 간호조무사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할머니의 사연이 방송되었다. 그런데 왼쪽 상단 자막에는 '요양원'이라고 표기되었고 하단 자막에는 '요양병원'이라고 나와 혼란스러웠다.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생활시설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2TV 제작투자</p> <p>- 방송 이후 강상욱 상명대학교 화학과 교수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알루미늄 포일 같이 모서리가 뾰족한 소재의 경우 마이크로파가 집중돼 화재가 생길 수도 있으나 모서리가 둥근 철제 뚜껑의 경우에는 마이크로파가 집중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며 찬 우유가 든 유리병을 철제 뚜껑으로 닫는 경우 마이크로파로 인해 데워지는 효과 또한 미미하므로 더욱이 화재 가능성은 없으므로 방송 내용에는 무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담당부서 : TV프로덕션 4</p> <p>-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 및 장소는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요양원' 과 '요양병원'은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 어린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제작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2TV [1 대 100] 방송 제언</p> <p>- 가수 박경이 5천만원에 도전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정답은 '오수의 오수개'였다. 뒤이어 '전라남도 오수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관련된 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오수는 전라북도에 있는 면이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TV 프로덕션 6</p> <p>- KBS <1 대 100> 제작진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13일 방송분 박경 5단계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 문제 해설에서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로 잘못 나갔습니다.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 대 100>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2TV [여유만만] 방송 제언</p> <p>- 반려동물 전문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동물약국 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자가 진료로 동물약국에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는데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금지되었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의약품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2TV 제작투자</p> <p>- 먼저 저희 「여유만만」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 진료를 조장하지 않았고, 동물약국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고, 치료는 동물병원에 가서 하시길 권한다고 방송하였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 1R [어업기상통보] 진행자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바다의 기상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기상 통보관의 음성이 낮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내용의 전달력이 떨어진다. 앞으로는 기상 정보를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라디오편성운영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품질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 1R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출연자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윤선의 미래생활사전' 코너에서 '차량 공유' 주제로 방송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패널이 현재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 서비스'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R프로덕션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 남윤선 싸이월드 실장은 평창올림픽에 우버가 없어 경기가 끝나고 불편해하는 상황을 전하며 우버에 대한 시장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밤에 택시를 잡지 못하는 등 특정 시간대 택시 수요를 택시업계가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젠가 우버가 도입될 것을 예상해 대기업들이 관련 스타트업들을 수백억 원에 인수한 뉴스를 전하였습니다. 또 진행자인 김원장 기자가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사실 택시업계가 장사도 안 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택시기사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남윤선 실장은 또 택시업계가 힘들어지고 택시기사는 오히려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 1R [58분 날씨]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분에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출근 전인 오전 6시대의 '58분 날씨'를 주로 애청하고 있다. 가장 주의 깊게 청취하는 부분은 단연 미세먼지 농도이다. 그런데 이날은 전국 비 소식과 예상 강수량만 알려주고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빠짐없이 보도해 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프로덕션 2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시간 안에 비 소식에 집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도하지 못했으나, 추후에는 최대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 1R [최강욱의 최강시사]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출근 시간대 편성된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전 출근길에 잘 듣고 있다. 그런데 매주 화요일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는 '진보의 향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 철학만 주장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이보다는 진보와 보수 쪽 인사가 함께 출연하여 양측의 입장을 고루 들을 수 있는 코너로 확장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p>□ 담당부서 : R 프로덕션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목요일에는 보수 쪽 인사인 윤여준 전 장관이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는 '보수의 품격'이라는 코너를 개설하여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 1R [김용민 라이브] 진행자 섭외 제언</p> <p>- 본인은 오랫동안 KBS 라디오 프로그램을 애청해온 청취자이다. 지난 5월, KBS 라디오 수시조정을 통해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김 시사평론가는 기존에 팟캐스트에서 막말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고,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또한 번의 욕설을 사용했다.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기대치와 규정에 맞는 진행자를 섭외해 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2TV 제작투자</p> <p>- 김용민 씨가 KBS가 아닌 다른 팟캐스트에서 드루킹에 대해 진정한 지지자가 아닌 사적 의도를 지닌 '직업적 지지자'라고 표현하면서, 가법적 욕설을 한 부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팟캐스트는 '공적 영역'인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규제 검열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의 매체입니다. KBS 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그 어떤 공중파 방송보다도 내용과 언어에 신중을 기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진행하는 김용민 씨는 지금까지 KBS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송 진행을 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p>
	<p>□ 1FM [노래의 날개 위에] 홈페이지 제언</p> <p>- 오페라, 가곡, 종교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성악곡들을 들려주어서 즐겨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특히 본인은 방송 시작 전에 홈페이지에서 선곡표를 확인해보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선곡표가 원어로 되어 있어 읽기 불편하다. 차후에는 제목 옆에 한국어 번역을 달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p>	<p>□ 담당부서 : TV프로덕션 4</p> <p>- 추후에는 선곡표를 게재할 때 최대한 한국어 번역을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p>

9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국,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월	신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문서번호 : 시청자서비스팀 - 179호 (2009. 1. 28.)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피해사실	6 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시청자본부장
 - 위원: 감사실장, 편성마케팅국장, 방송주간, TV 프로덕션 1 담당, 네트워크시설국장, 법무실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국장이 됨.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견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5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 또는 'KBS'로 한다)가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해 구축한 '시청자청원'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운영한다.

항목	내용
방송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도	(TV·R)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TV·R)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광고 등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등
방송경영	행사, 사업, 계열사, 수신료 등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KONG, MY K 등
시청자권익	방송피해 및 권리구제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4. 청원 발의 및 청원절차

- ①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접수된다.
 - ② 발의된 청원은 청원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 ③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⑥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⑦ 청원 성사 및 성사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원 발의자에게 알려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①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②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③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④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⑤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⑥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통신택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발의된 청원에 동의(추천)를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⑦ 관리자는 장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⑨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국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